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학』 교과서의 분단소설 연구

-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나하나

# 『문학』 교과서의 분단소설 연구

-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나하나

# 인 준 서

나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적 구심점은 줄곧 ‘분단’이었다. 그것은 전쟁 이후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 갈등과 경쟁적 우위 선점을 위한 지나친 군비 경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소모전으로 점철된다. 이 시기 이후 많은 소설들은 당대 민중들의 삶의 고뇌와 아픔을 다루면서 분단과 그로 인한 상처와 치유를 직간접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의 부류를 ‘분단소설’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18종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분단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검토하며 분단소설의 작품 수록양상과 수록된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작가나 작품의 분단소설이 많이 실려 있는지, 주제나 소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작가의 왜곡된 시선으로 남과 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학의 한 장르인 소설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분단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단소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학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문학교육은 앞으로 더욱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냉전, 탈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명에는 아직도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분단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특수한 상황의 국가현실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일한 태도이다. 이러한 시

점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일은 특정 계층의 주도가 아닌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학습자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 중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 분단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통일 교육은 반공 시절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습자에게 통일 교육의 기본이 학교에 있다면 먼저 교과서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설은 교과서 내 다른 어떤 장르보다 양적인 면에서 비중이 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단소설은 통일 교육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차기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7
II. 문학교육과 분단문학 .....	10
1. 분단문학의 개념 .....	10
2. 분단문학의 전개 과정 .....	13
3. 문학교육과 분단문학 .....	20
III.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 양상 .....	27
1. 교과서 내 분단소설 수록 양상 .....	27
1-1. 수록양상 .....	27
1-2. 분단소설의 주제별 형상화 .....	32
2. 교과서 내용 비판적 검토 .....	53
2-1. 작품수록의 적절성 .....	54
2-2. 단원 구성 및 학습활동 .....	55
2-3. 편향적 시각 .....	66
2-4. 극복에 대한 의지 결여 .....	72

IV.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	81
1. 분단소설과 학습자의 분단 극복의식 .....	81
2.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 .....	89
3. 교과서 분단문학의 개선방향 .....	92
V. 결 론 .....	9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제7차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린 분단소설 .....	28
<표 2> 제7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	31
<표 3> 분단소설의 주제별 형상화 .....	34
<표 4> 단원명 및 단원 학습목표 .....	56

# I.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해방은 곧 다가올 민족분단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닥칠 민족 비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해방직후 친일과 청산, 무너진 나라의 재건 등 역사적 과제에 시급했던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분단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개입을 시작으로 야기된 분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단만을 넘어서 이념적 단절마저 가져왔다. 남과 북으로 갈린 국토의 단절은 물론 전통을 이어오던 우리민족은 두 개의 이념으로 분리된 것이다. 각각 형성된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는 서로를 철저히 외면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속을 이어갔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남한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 나간다.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 반공이데올로기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의도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시각을 편향적으로 만들었고 그럴수록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남한의 이러한 정치적 사상은 교육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써 국어교과서를 선택하고 그 안에 강력한 정치이념을 주입하였다. 그로인해 국어교과서에는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주를 이루었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

그 사이 남한은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조금씩 진화

하였다. 또한 정권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작되었던 시민의식도 성장한다. 이런 변화는 한국전쟁과 북한에 대한 열린 시각, 객관적 시각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북한에 대해 열린 시각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 시대를 위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앞에 교과서도 조금씩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전쟁의 경험도 흐르는 시간 앞에 눈에 보이는 상처는 많이 아물었고 세대교체를 거듭하며 한국전쟁은 더 이상 피부로 공감하기 힘든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 방향을 바꾸어 놓은 잊어서도 안 되며, 잊힐 수도 없는 거대한 비극적 사건이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으로 파생된 숨겨진 상처는 곳곳에 존재하며 통일을 위한 준비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한국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전쟁의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시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민족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전락한 것은 교육의 탓이 제일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접근으로 분단소설을 통한 국어교육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야기 문학의 한 장르인 소설은 인간 삶을 이야기하므로 현실성을 가지면서도 시간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삶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어예술적인 미의 추구뿐 아니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인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념까지도 소설의 구성요소가 됨을 뜻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소설은 독자에 대해 교육 작용을 수

행하며 교육적 도구로 손색이 없다. 이점은 국어교육에 있어서 소설교육의 위상과도 연결될 것이다. 결국 단 한편의 소설만으로도 그것을 읽은 독자는 새로운 사상을 접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마치 피부로 느낀 듯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반세기를 보냈다. 이제는 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히 부정만 일삼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화합을 준비할 때이다. 이는 곧 통일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통일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 믿고, 또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성적 판단 앞에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는 통일의 주역이 될 후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적으로만 인식한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층 성숙한 시각의 결여도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문학, 그 중에서도 분단소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독자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짓게 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분단소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장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아픔과 함께 분단소설은 끊임 없이 우리와 함께했고 민족 분단의 모순과 갈등, 극복,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분단소설을 바탕으로 끝나지 않은 분단의 상황과 아픔을 제대로 보여주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상처임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야 한다.<sup>1)</sup> 결국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출발점인 것이다.

---

1) 한미옥, 「분단소설을 통한 문학교육의 효율화 방안 - 제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를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은 문학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의 흔적으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룬 분단소설 중 극단적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지닌 작품을 배제하고 좀 더 분단극복의지가 담긴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교육은 체계적이지 않고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고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분단소설이 통일교육의 도구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연구대상이 된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주입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남한이라는 피해의식을 만들어 놓았고 북한을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형상하여 통일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정권의 의도적 이념에 의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반공의식으로 완벽하게 길들여진 국민들은 전쟁과 북한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은 연구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분단소설의 교육적 가치 연구는 오늘날에 와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 있지만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관련

하여 분단소설의 교육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학순<sup>2)</sup>은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주제별로 유형화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분단극복의식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교육이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인식조사는 연구의 방향을 안내하고 보다 반성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어 분단소설의 주제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작가의 전쟁 체험여부와 작품 발표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분단소설의 주제형성에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한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연구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학목<sup>3)</sup>은 소설의 사회 반영적 특성과 문학교육의 관계와 통일교육의 상호관계성을 기초로 기존의 통일교육의 흐름과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어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타난 학습목표, 학습활동, 작품해설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비판적 검토가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소수의 작품만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따른다. 하지만 교과서의 구성을 살피는 시도는 분단소설의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강명순<sup>4)</sup>은 교과서 수록 작품 선정 및 단원구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의 의의는 분단소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연구한 데 있다. 분단소설 교수-학습 방법으로 3가지 방법<sup>5)</sup>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

2) 김학순, 「문학 교과서 소재의 분단소설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김학목, 「문학교육에서의 분단소설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 강명순, 「분단소설의 교수-학습방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나 제시한 3가지 방법은 분단소설 이외 모든 소설 교육방법에 적용 가능한 교수방법으로 분단소설의 교수방법으로 선택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김진택<sup>6)</sup>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가되고 강조된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연구하였다. 연구의 노력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작품의 단원과 구성을 살피고 있다. 많은 논문은 교과서 수록 작품 중 소수의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이 논문은 모든 작품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논문은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나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내용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분단소설의 주제별 유형화를 통해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된 내용으로는 분단소설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분단소설을 통해 통일교육을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분단소설이 지니는 문학교육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비판적 검토는 많이 미흡했다.

먼저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을 주제별로 유형화 한 항목에서 분류한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분류의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분단소설의 주제형성에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한 것도 있어 작품의 구체성이 결여된 연구도 있었다.

- 
- 5) 1. 인물대조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2. 작품비교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3. 체험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6) 김진택, 「중고등학교 분단소설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그리고 교과서의 구성이나 학습활동 등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었으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별개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아 연구의 깊이가 깊지 못했다. 비판적 검토의 내용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했다. 그 내용도 소수의 작품, 교과서만을 다루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심지어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분석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6차 교육과정 때의 교과서를 다루고 있는 논문도 있어 다소 혼란을 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분단소설이 수록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좀 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문학교육 중 소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다룬 장르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사회의 체험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인간 삶의 다양성과 풍부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인 소설 중 분단소설을 택한 이유는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장르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문학부터 오늘날 까지 표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분단의 정서는 우리 문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문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단문학에 속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분단 상황이 우리민족의 생각과 가치관에 크게 개입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민족의 분단은 또다시 화합 즉, 통일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민족의 특수한 상황을 수궁하고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은 민족의 상처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듯이 분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분단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원인 탐구는 문학교육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학이라는 장르, 그 중 소설의 경우 시대의 한 모습 즉, 구체적이고 상세한 배경, 인물, 사건, 시간 등을 구성요소로 삼기 때문에 소설 속에 그려진 삶의 한 단면을 가지고 근원적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한 우선적 과제 중 문학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이 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전쟁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상대를 수용, 화합 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과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어느새 전쟁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로 교체되었다. 이는 역으로 분단소설의 교육적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학 중 소설의 교육적 위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역사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겠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라기 보다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통일교육관점의 변화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단소설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편찬된 교과서 내의 분단소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내용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교과서의 구성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분단소설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을 위한 체계적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검토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하여 그 기준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의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교육이 얼마큼의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들이 학습자에게 분단과 극복의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단극복 인식을 조사하도록 하겠다.

## II. 문학교육과 분단문학

### 1. 분단문학의 개념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민족은 그토록 꿈꿔왔던 해방을 맞는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도 전에 서구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민족분열의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시작한 분열은 6·25 전쟁을 겪으며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한 민족 간 잔인한 살상을 야기한 이 전쟁은 종지부를 찍지 않은 채 휴전의 상태에 돌입하고 물리적, 정신적 단절의 시대로 접어든다. 끔찍한 전쟁의 경험은 곳곳에 상처를 남겼고 우리 민족은 혼란과 진통의 과정을 견디며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일구어 왔다. 어느덧 전쟁은 반세기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남한은 짧은 시간동안 일그러진 국가를 체건 하며 놀랍도록 부흥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이념과 생각을 지배하는 큰 사건으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분단 상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 민족을 지배해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혼란과 방황의 시기는 문학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문학이 가지는 특성에 연유한다. 문학은 삶의 내면과 외면, 작은 것과 큰 것,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이긴 것과 진 것 등을 총체적으로, 언어라는 기본 도구로 형상화 한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의 삶 속에 융해되어 소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단 이후의 문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이는

---

7)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20쪽.

우문 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분단의 상황에서 배출되는 문학이기 때문에 분명 일반적인 문학과는 차이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고려해 우리는 분단 이후의 모든 문학을 ‘분단문학’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범위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임헌영은 분단문학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넓은 뜻에서 분단문학이란 분단시대의 모든 문학을 뜻하는 것으로 해방 이후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 될 때까지 남북한 모든 문학을 포함한다 하였다. 말하자면 ‘분단시대의 문학’의 준말인 셈이다. 좁은 뜻의 분단문학은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삶과 사상과 정서를 담은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학 활동을 뜻한다 하였다. 즉 좌우익 사이의 피나는 싸움이나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것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일어난 민족 내부의 근본적 갈등과 모순을 다룬 일체의 문학예술을 이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올바른 분단 문학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 4가지 제시하고 있다.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고 독재 권력을 옹호하지 않으며 이념적 경직성이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8)</sup>

임헌영이 제시한 4가지의 조건은 분단소설의 범위와 의미를 정의하는데 효과적이고 구체적 제시긴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임헌영을 비롯한 분단문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쟁의 모습을 형상화 하면서 민족의 갈등, 모순, 정서를 담고 한편으로 객관적, 비판적 시각을 전제로 전쟁의 원인을

---

8) 임헌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221쪽.

탐색하고 더 나아가 분단을 극복하는 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권영민은 분단문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분단문학은 통일된 민족문학을 지향한다. 물론, 분단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모순의 극복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통일문학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할 수 없을 것이다. 분단문학이 민족 분단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단문학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 분단문학은 분단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 문화의 총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분단문학이 분단 극복의 의미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민족 사회의 내재적인 모순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전제된다. 그것은 분단 시대의 상황적 문제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데올로기 문제에 내재해 있는 역사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까지 그 정신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문학은 결국 분단논리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9)</sup>

이처럼 분단문학이란 분단 시대의 문학을 뜻함과 동시에 민족 내부의 갈등과 사회적 모순, 당대 민중들의 생활고와 아픔을 담아내면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분단문학<sup>10)</sup>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5, 23쪽.

10) 앞으로 사용될 분단문학은 분단소설을 의미함을 알린다. 사실 문학은 소설, 시 등 다양한 하위 장르를 가지는 개념이지만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분단문학 중 분단소설에 비중을 두고 논문을 전개해 나갔음을 알린다.

## 2. 분단문학의 전개 과정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 작가의 체험과 작품이 쓰인 시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분단소설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10년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상 하나의 연속적인 시기를 10년 단위로 묶는다는 것은 세대의 개념에서는 타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작품경향과 그대로 대응될 수는 없는 일이다.<sup>11)</sup> 이점을 유의하여 일반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1950년대

1950년대 소설들의 상당수는 전쟁이 매트릭스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쟁체험으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의 비극적인 현장성과 그로 인한 내성화된 후유증의 환기 및 전후 상황과 의식내용이 그 중요 성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또한 소설의 사건사의 시공적인 배경이 되어있는 것이다.<sup>12)</sup>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작품들은 전쟁의 비극성과 생생한 아픔을 그리고 있다. 전쟁의 비극성은 소설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950년대 소설은 전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훼손을 입거나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입상화한 작품이 많다. 이런 손상된 삶에 대한 현저한 인지는 단순히 그것이 피해의식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 파손된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핵심으로서 받아들인

11) 김윤식·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5, 442쪽.

12) 김윤식·김우종 외, 앞의 책, 366쪽.

결과인 것이다. 즉, 불구화된 신체나 정신은 전쟁에 침해받은 현실의 가장 구체적인 희생자로서의 표상인 것이다. 손창섭의 「혈서」, 「비오는 날」 등 일련의 작품, 오상원의 「백지의 기록」, 하근찬의 「수난이대」, 서기원의 「암사지도」,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이호철의 「파열」 등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모두 전쟁의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깊은 손상과 재화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쟁을 곱타이나 기아와 등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 여성이다. 전후소설의 여성들은 흔히 전쟁의 폭력과 파괴력 앞에서 곱타당하거나 결핍상태에 의해서 ‘양공주’등으로서 성을 상품화하는 매춘의 삶으로 전락한다.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송병수의 「쇼리킴」, 오상원의 「황선지대」, 정연희의 「과류상」 등의 작품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여인들의 손상상태나 전락한 삶의 단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며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의 폭력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가차 없이 유린되는 상황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 있다. 무자비한 살상, 자살등과 같은 인간의 잔혹함을 고발하며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다.<sup>13)</sup> 예컨대 김동리의 「밀다윈시대」, 장용학의 「요한시집」, 「현대의 야」가 그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작품은 전쟁과 체험, 그리고 전후의식 등 전쟁의 상황과 밀접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충격적인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의 밀도가 상상력을 압도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만, 또한 분단에 대한 냉철한 점검의 기호가 마련되지 못함을 시사한다.<sup>14)</sup> 사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전쟁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

13) 김윤식·김우종 외, 앞의 책, 370-375쪽.

14) 하가림, 앞의 논문, 16쪽.

바라볼 수 있는 지금에서야 전쟁의 원인을 탐색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참혹한 전쟁을 겪은 직후의 상황에서 객관적 시각이나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모른다. 그러나 분단소설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러나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 역시 오늘날 분단소설을 연구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② 1960년대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었던 1950년대 소설의 경향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순수문학<sup>15)</sup>이 견지해온 문학의 독자성,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순수문학적 경향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으며, 전쟁체험을 다룬 감상적 문학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시각과 인식으로 역사와 사회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갖게 되고 또한 자유당 정권의 부패에 따른 저항의식 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60년대 문학적 변모는 기본적으로 4·19와 5·16이라는 사회 변혁적 소용돌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sup>16)</sup> 이 역사적 체험은 다양한 소설적 변용으로 형상화되면서 발화하는데, 대표적 작가와 작품에 김승옥의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60년대식」과 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 「별을 보여드립니다」, 최인호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작가 정신에는 의연히 4·19정신이 한 뿌리로 자리하고 있었다. 4·19가 문학에

15) 순수문학은 당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 점은 이 시기 문학에 대해 공통되는 비판이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들어와 많은 부분 극복되기 시작했다.

16) 장현숙, 「자유와 절망의 꽃, 그리움으로 피어나다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소설의 얼굴-모래톱이야기 외 6』, 푸른사상, 2007, 279쪽.

끼친 의미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1960년대 초기의 열기와 감동, 우리들의 문학적 충동은 이 시대의 들끓는 분위기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중략)

4·19의 거센 흥분이 지나가고 난 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역사의 의미와 만났다. 자유의 의미와도 만났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빈궁하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조야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언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랑은 역사의 의미, 자유의 의미를 탐구하고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우리는 자부한다.<sup>17)</sup>

4·19가 가져다준 진리와 정의 추구, 자유화의 물결은 구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개화를 예고하면서 당대 현실에 커다란 충격과 각성을 불러 일으킨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작품은 좌우이데올로기의 편파성과 허구성을 형상화한 최인훈의 『광장』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자유당정권을 몰아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던 4·19혁명이 5·16군사정권의 발호 속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을 때, 1960년대 중반부터 작가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위한 고민과 대응책과 치유책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1960년대의 문학은 1950년대의 문학을 일편 계승 발전시키면서도, 실험적 창작기법, 새로운 시대의식, 감성적 묘사를 도입한 일군의 신세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꽃피기 시작한다.<sup>18)</sup>

결국 60년대의 4·19와 5·16의 경험은 작가들에게 문학적 변모의 한 변수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첫 출발의 계기로 작용한다. 60년대를 살았

---

17) 한미옥, 앞의 논문, 42쪽, 재인용.

18) 장현숙, 앞의 논문, 280쪽.

던 작가들,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격렬하게 자유와 억압의 상충지대에서 새로운 탐색을 시도했으며, 이 새로운 탐색의 과정이 새로운 시대의식과 현실비판 의식을 내포한 참신하고 다양한 소설로서 열매 맺은 것이다.

### ③ 1970년대

이 시기 우리 사회는 유신 독재시기에 접어든다. 유신독재는 그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대화를 이용하려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sup>19)</sup>을 발표한다. 이는 유신선포보다 불과 3개월 앞선 일로, 남북문제의 새 출구에 대한 민족적 기대감을 모아 독재체제를 굳히려는 것이었다. 독재정권은 철저한 국민통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분단소

---

19)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은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와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7개항의 남북 간 합의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②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 ③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⑤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한다.
- ⑥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⑦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설은 지속된다.

1950년대 이래 계속해서 한국작가들에게 작가적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과제가 되어온 6·25라는 소재는 1970년대에 들어와 주로 소년시절에 전쟁을 체험한 작가들의 가슴과 손을 만나면서 여러 편의 명작으로 태어나게 된다. 작품의 양과 질을 볼 때 70년대의 분단소설은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백」, 윤홍길의 「장마」, 「황혼의 집」, 김원일 「노을」, 「어둠의 혼」, 조정래의 「황토」, 「이십년을 비가 내리는 땅」,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굵주린 혼」 등과 같이 전쟁을 소년기에 겪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 시기 소설들은 소년기 체험에서 출발한 만큼, 주로 회상의 시점과 증언의 포즈를 취함으로써 기억 속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접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의 참 모습을 알리려 했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과 북」, 「지리산」, 「노을」, 「장마」 등의 작품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작가들은 6·25라는 소재는 전쟁소설, 이념소설, 민족문학 등 여러 가지 소설유형을 매개하는 것임을 실천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의미를 단순한 과거사로 고착시키는 대신 ‘오늘’과 ‘여기’에 아직도 분명하게 직간접적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즉, 6·25는 분명 50년대에 빚어진 ‘역사’이면서 동시에 70년대 동시대인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꾀하는 작가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분단체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문학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 극복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의

---

20) 김윤식, 김우중 외, 앞의 책, 513쪽.

현장을 다시 조명해 가는 소설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21)</sup>

#### ④ 1980년대

1980년대는 전두환의 등장과 함께 민주항쟁 등 정부와 국민간의 충돌과 갈등이 극대화되고 정부의 폭력과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 속에 민중의 의식이 성장하고 더불어 민중문학도 성장한다. 이를 통해 참여, 민족, 사실, 농민, 노동자문학에까지 이른 우리 한국문학은 80년대에 그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 즉 이 시기 문학은 70년대까지 참여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 농민·노동자문학을 수렴하면서 이 모두를 민중문학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단문학은 분단극복 의지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단극복을 위한 반성적 자각은 지배 권력의 통치 근거였던 반공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절감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시기 분단소설은 전쟁의 후유증과 그 해결의 과제를 형상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 이후 지금까지 지배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되어온 반공이념이 통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의 접근은 과연 가능한지 질문을 제기한다.<sup>22)</sup> 이러한 반성적 시각은 분단소설의 극복의지로의 지향을 가져온 것이다. 대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윤정모의 「님」이나 이창동의 「소지」, 임철우의 「붉은 방」 등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비극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묻고 있다.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표면화되는 현실에서도 분단극복의 길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자체의 허구성과 이로 인한 비극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문열의 「영웅시대」가 여기에 해당하는

21) 권영민, 앞의 책, 304쪽.

22) 김윤식·김우중 외, 앞의 책, 574쪽.

다. 한 지식인의 삶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 선택의 과정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대한 금기의 벽을 깨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지닌 지식인 주인공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남쪽 중심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분단문학의 하나 차원을 마련했다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 직후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비극적 원천을 형상화한 계열로 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의 모습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삶의 현장을 교차시키면서 거창 사건 당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삶을 그려낸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 이데올로기적 과민반응에서 벗어나 분단의 원인과 실상을 해방 직후 우리 삶의 모습에서 찾으려 한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들 수 있다. 특히 「태백산맥」은 벌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삶이 곧 해방 직후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확대됨은 물론, 이 시기 모습을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단순화시키는 논리의 허구성을 반성케 하는 동시에 관념적 진술에 묻힌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을 현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듯 80년대 이후의 작가들은 철저한 반공이념 주입의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탐색과 객관적 안목으로 이데올로기 편향적 논리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분단을 조망하려 하였다.

### 3. 문학교육과 분단문학

지금까지 분단문학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문학이 갖는 교육적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사실 국어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설정된 ‘문학’은 『국어』 교과서 속의 일부 글들과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어교과의 일부로 선택 이수하는 검인정 교과서(『문학』)을 가리킨다. 문학

을 중시하는 이들은 문학을 국어와 동등한 하나의 독립과목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일부로서 국어교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종속된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다.<sup>23)</sup> 하지만 실제로 문학교육은 문학이 갖는 고유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도구이기 보다는 대학입시 제도 및 그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문학의 교육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의지의 첫 시작으로 문학의 본질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그 본질의 큰 줄기를 찾아보면 크게 4가지<sup>24)</sup>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은 언어의 기록이다. 더 나아가 문학은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예술’이기도 하다.<sup>25)</sup> 즉 문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화적 실상을 표출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학은 인간 체험의 반영이다. 문학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려내고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특성으로 문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사의 보이지 않는 이념과 규정, 문화 등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학은 상상의 문학이다. 상상의 기본은 현실이지만 문학은 허구라는 문학적 도구로 재생산된 가상의 현실이다. 이러한 특성은 문학을 자유롭게 하고 독자에게도 흥미와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상상력은 작가와 독자가 작품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문학이

---

23) 최시한, 앞의 책, 20쪽.

24)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국어교육학 원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5, 406-407쪽.

25) 김창원, 우한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301쪽.

기에 같은 공간에서 생산된 작품이라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작가도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전반에 흐르는 문화, 이념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문학은 사회구성원의 대표역할을 맡게 된 작가를 통해 드러난 당시 사회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은 인간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걸친 영역으로 교육적 가치를 획득한다. 역으로 말하면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하여 새롭게 교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학은 입시제도에 의해 뒤로 물러나야 하는 도구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논문의 초점으로 돌아가 ‘분단문학’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단문학’은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분단 상황이 언젠가는 종식될 것임을 생각할 때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분단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할 지라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문화와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가치관 또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재해석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함을 통해 문학의 교육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학교육이 분단문학과 관련하여 문학의 본질에 맞게 진행되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2004년 9월 7일 전직 교사로 구성된 한 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선언’을 하였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어린 제자들에게 ‘북진·멸공·통일’을 세뇌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했던 것을 참회한다고 밝히며 반공교육과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통일 교육,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2004.09.07.)<sup>26)</sup>

이 기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교육이 편향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 1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단정기부터 제 4차 교육과정까지는 통일이라는 언급은 관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의 순화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 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반공교육의 심화로 볼 수 있다. 그러다 통일교육에 대한 이념 확보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제5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이 시기는 ‘통일 · 안보 교육’이란 이름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했는데 이는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 노력의 흔적으로 북한 동포에 대한 친밀감 및 ‘언젠가는 합쳐야 할 반쪽’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이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제 7차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시기 통일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첫째, 자유 민주주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둘째, 통일 환경과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정립

26) 강명순, 앞의 논문, 9쪽 재인용.

27) 김진택, 앞의 논문, 35쪽.

28)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49쪽.

셋째,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  
의지 형성 (통일원, 1999)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 문학교육의 목표를 확인해보자. 문  
학교육의 목표를 확인한 후 분단 극복의 일환으로 어떠한 구체적 목표를 세  
웠는지도 확인해 보자.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  
다.
-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문학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sup>29)</sup>

위에 나타난 목표는 문학교육을 이해, 감상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창작과 가치심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균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 ‘가’항목은 문학 지식과 관  
련된 것으로 ‘문학’과 ‘문학 활동’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학의 특  
성 외에 문학을 생산하는 활동, 즉 수용 및 창작도 중요함을 인식한 결과로

---

29) 김창원, 우한용, 앞의 책, 303쪽.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항목은 ‘문학 활동’의 구체적 수행능력으로 문학을 수용하는 독자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의 생산하는 독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독자인 학습자의 능동적인 감상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목표 ‘다’, ‘라’항목은 문학에 관한 태도 관련 목표이다. ‘다’항목은 문학의 가치를 개인적 측면에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라’항목은 공동체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문학 태도영역과 관련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②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선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과소평가되어 온 일제 강점기의 좌파문학은 물론, 분단 이후 50여 년 동안 남한 문학, 북한 문학, 재외 국민 문학으로 나누어 발전해 온 문학을 아울러,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민족문학의 모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지향 이해하기, 세계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가치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한국 문학을 발전시키려는 태도 갖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sup>30)</sup>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의 목표와 통일교육을 포함한 태도 영역은 교육적 접근이 지난 역사에 비해 많이 진보함을 알 수 있다.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

---

30) 김창원, 우한용, 앞의 책, 319쪽.

임을 인정하고 이념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은 교육적 목표가 많이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특히 반공이념이 교육이념으로 상정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이념교육이 행해지던 지난 교육과정기 때와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 한층 부드럽고 좌파계열 문학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문학을 문학으로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달성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일 일수 있으나 적어도 교육목표가 극단적 이념에서 벗어나 문학을 문학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확보한 일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수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통일교육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 Ⅲ.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 양상

#### 1. 교과서 내 분단소설 수록 양상

##### 1-1. 수록양상

분단 소설에 대한 교육은 분단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의 현실을 인지하여 이를 화해와 공존의 현실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문학작품은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반응이므로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파악해야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소설은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 및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념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sup>31)</sup>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는 총 18종이 존재한다. 18종 교과서에는 총 22편의 분단소설이 실려 있다. 6차<sup>32)</sup>와 비교했을 때 7차가 6차보다 좀 더 많은 분단소설 작품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냉전이테올로기가 완화되고 타자화 되었던 이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이들의 문학적 가치는 새롭게 조망되고, 이념이 금기가 아닌 이해와 포용의

31) 이정현, 「분단소설 교육론」,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0쪽.

32) 김학순, 앞의 논문, 14쪽.

6차에는 15의 작품이 실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예(오상원), 카인의 후예(황순원), 불신시대(박경리), 오발탈(이범선), 비 오는 날(손창섭), 나무들 비탈에 서다(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황순원), 학(황순원), 수난시대(하근찬), 병신과 머저리(이청준), 나목(박완서), 장마(윤홍길), 어둠의 혼(김원일), 불꽃(선우휘), 광장(최인훈).

대상임<sup>33)</sup>을 깨닫는 시대가 되면서 교과서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노력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단 극복에 대한 시대적 의지가 그만큼 고조되고 이에 따라 분단소설을 통한 보다 개방적인 통일교육의 요구가 작용한 것이다. 그럼 현재 문학교과서 내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양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1> 제7차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린 분단소설

	지 학 (권) 34)	지 학 (박) 35)	디 딤 돌 36)	천 재 37)	금 성 38)	두 산 동 아 39)	문 원 각 40)	블 랙 박 스 41)	교 학 (구) 42)	민 중 43)	중 앙 44)	한 교 45)	상 문 46)	대 한 (김) 47)	교 학 (김) 48)	형 설 49)	태 성 50)	청 문 각 51)
목넘이 마을의 개 (황순원)			✓		✓													✓
비오는날 (손창섭)				✓			✓	✓	✓		✓	✓	✓	✓				
학 (황순원)		✓	✓					✓		✓	✓	✓						
유예 (오상원)		✓	✓	✓				✓	✓	✓	✓			✓	✓		✓	
탈향 (이호철)												✓						
사수 (전광용)						✓												
수난이대		✓	✓				✓		✓	✓	✓	✓				✓		

33) 강진호, 「교과서·문학 교육·교사 :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역락, 2002, 2쪽.

(하근찬)																			
불신시대 (박경리)																	✓		
오발탄 (이범선)	✓	✓			✓	✓			✓		✓				✓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											
광장 (최인훈)	✓	✓	✓	✓	✓	✓	✓	✓	✓	✓	✓	✓				✓	✓	✓	✓
똥아지는 살들 (이호철)				✓															✓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	✓		✓		✓									✓	
나목 (박완서)								✓		✓		✓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박완서)																			
어둠의 혼 (김원일)				✓		✓				✓	✓				✓				

장마 (윤홍길)		✓				✓	✓			✓		✓		✓		
중국인 거리 (오정희)							✓			✓						
엄마의 말뚝 (박완서)	✓						✓					✓	✓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						
철쭉제 (문순태)									✓							

- 
- 34) 권영민.  
35) 박갑수, 김진영, 이송원, 이종덕, 박기호.  
36) 김윤식, 김종철, 맹용재, 진중섭, 허익.  
37) 홍신선, 박중성, 김강태.  
38) 박경신, 김성수, 이용수, 안학서.  
39)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이대욱, 경정록.  
40) 한철우, 김명순, 김충식, 남상기, 박영민, 박진용, 염성엽, 오택환.  
41) 한계전, 신범순, 박운우, 김송환, 노진한.  
42) 구인환, 구자송, 정충권, 임경순, 하회정, 황동원.  
43) 김창원, 권오현, 신재홍, 장동찬.  
44) 조남현, 정성배, 조세형, 장수익, 배성완.  
45) 김병국, 윤여탁, 김만수, 조용기, 최영환.  
46) 강황구, 권형중, 김대용, 박정곤, 이준.  
47) 오세영, 최래욱, 유학영, 남궁환, 남기혁, 류순태, 송규각, 정일형.  
48) 김대행, 김종신, 김동환.  
49) 박호영, 한승주.  
50) 김상태, 송현호, 김혜니, 김유중, 황도경, 조혜란.  
51) 최웅, 유태수, 김용구, 이대범.

<표 2> 제7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작품 (발표년도)	횟수		작품 (발표년도)	횟수
(1)	철쭉제 (1981)	1	(12)	광장 (1961)	16
(2)	목님이 마을의 개 (1948)	3	(13)	달아지는 살들 (1962)	2
(3)	비오는 날 (1953)	8	(14)	너와 나만의 시간 (1964)	1
(4)	학 (1953)	6	(15)	병신과 머저리 (1966)	5
(5)	유예 (1955)	10	(16)	나목 (1970)	3
(6)	탈향 (1955)	1	(17)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1972)	1
(7)	오발탄 (1959)	8	(18)	어둠의 혼 (1973)	5
(8)	사수 (1957)	1	(19)	장마 (1973)	7
(9)	수난이대 (1957)	8	(20)	중국인 거리 (1979)	2
(10)	불신시대 (1957)	1	(21)	엄마의 말뚝 (1980)	5
(11)	나무들 비탈에 서다 (1960)	1	(2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82)	1

위에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7차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분단소설은 총 22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작품 중 최인훈의 「광장」이 18종 중 16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어서 오상원의 「유예」가 10개의 교재에 실려 있었고 하근찬의 「수난이대」와 이범선의 「오발탄」 그리고 손창섭의 「비오는 날」이 각각 8개의 교과서에 실림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1940년대 소설이 1편, 1950년대 소설이 8편, 1960년대 소설이 5편, 1970년대 소설이 5편, 1980년대 소설이 3편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소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960-1970년대 소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7차 문학교과서에는 6차와는 다르게 1980년대 소설이 실렸는데 이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 7차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분단의 상황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가치화 하기

위해 소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단순히 분단소설을 실는다고 해서 분단에 대한 개념이나 통일에의 지향성을 온전히 갖추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분단소설의 수록만으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과정에 맞는 소설 작품의 선정과 더불어 적절한 학습활동으로 문학교과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품의 내용과 별개의 단원 목표 설정이나 학습활동 등은 오히려 분단의 상황을 실질적,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므로 문학교과서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분단소설 작품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와 여러 활동을 통해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52)</sup>

## 1-2. 분단소설의 주제별 형상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은 주제를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분류를 위한 기준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크게 2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전쟁의 비극성 고발’과 ‘극복의 가능성’이다. 이는 분단문학의 개념에 근거한다.

첫 번째 분류 항목은 분단소설이 민족 내부의 갈등과 사회적 모순, 당대 민중들의 생활고와 아픔을 담아내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피폐해진 삶의 모습, 비인간성 등을 그리고 있다. 이로써 ‘피폐한 현실에 대한 천착’,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내면의 파괴’, ‘실향과 이산의 비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

52) 한미옥, 앞의 논문, 37쪽.

분단문학은 피폐한 현실에 대한 천착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직후에 쓰인 50년대 대다수의 작품은 이러한 현실의 조망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있다. 소설속의 현실에서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여기저기 가난의 신음소리만 가득하고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피폐한 현실은 인간 내면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항목에 속한다. 전쟁은 무자비한 살상을 가져왔고 전쟁의 잔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겼다. 이는 육체적 불구의 모습으로 소설에 등장하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에 의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들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과 비극을 첨예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비극을 가장 크게 피부로 경험한 이들은 바로 실향민과 이산가족일 것이다. 작가는 이들 삶의 고통과 그리움, 헤어짐의 상처를 포착함으로써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분단문학은 전쟁의 비극성을 총체적으로 그리며 전쟁의 비극과 아픔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극복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이것 역시 전쟁의 현실을 잘 담아내면서 동시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방하는 분단소설의 개념에 근거한다. 이는 또다시 3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삶의 극복의지’를 보자. 이 항목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그것을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삶의 의지로 연결되는데 정신적 불구, 육체적 불구를 가진 주인공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삶의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고자 한다. 이는 전쟁의 참상에 망연자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극복의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보이는 삶의 극복의지는 실상 거창하진 않다. 자신의 삶의 범위에 한정

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를 다룸으로써 극복의지를 표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이념의 허구성 지양’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남한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지양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데올로기 역시 지양한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소속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야하고 인간은 그 사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거부하고 있다. 꼭 선택의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을 적용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극복의 가능성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끌어 내고 있다. 대체로 원형상징성을 갖는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함축하고 이를 통해 극복과 회복을 다루는 것이다. 이념은 다르지만 본래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임을 내세워 분단극복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분단소설의 주제별 형상화

1) 전쟁의 비극성 고발	① 피폐한 현실에 대한 천착	「중국인 거리」, 「불신시대」
	②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내면의 파괴	「유예」, 「비오는 날」, 「오발탄」, 「사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나무들 비탈에 서다」, 「너와 나만의 시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③ 실향과 이산의 비극	「탈향」, 「닿아지는 살들」
2) 극복의 가능성	① 삶의 극복의지	「수난이대」, 「병신과 머저리」, 「엄마의 말뚝」
	② 이념의 허구성 지양	「어둠의 혼」, 「광장」
	③ 민족의 동질성 회 복	「학」, 「목님이 마을의 개」, 「나무」, 「장마」, 「철쭉제」

## 1) 전쟁의 비극성 고발

### ① 피폐한 현실에 대한 천착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전쟁 직후를 작품 배경으로 인천 중국인 거리의 피폐해진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남루한 중국인 거리로 이사하여 성장하는 존재이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중국인 거리는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일종의 슬럼가이다. 이곳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건물들과 낡은 모습의 중국식 적산 가옥, 그리고 기지춘과 미군 부대로 둘러싸여 전형적인 전후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화자를 둘러싼 세계는 양공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녀인 치옥의 전략처럼 해인초달이는 아릿한 비극의 냄새로 가득하다. 그리고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는

노란 빛은 환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삶의 소망을 잃은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펄럭이며 기여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중략)

사람들은 이제는 집을 훨씬 덜 지었으나 해인초 끓이는 냄새는 빠지지 않는 염색 물감처럼 공기를 노랗게 착색시키고 있었다. 햇빛이 노랗게 끓는 거리에, 자주 멈춰 서서 침을 뱉으며 나는 중얼 거렸다.<sup>53)</sup>

노란 빛은 작중인물들의 암울한 삶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할머니의 죽음, 여덟 번째 아이를 난산하는 어머니의 고통, 김둥이에게 학대당해 죽는 매기 등 작중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난산과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나는 따스한 핏속에서 돌아오르는 순(筍)을, 참을 수 없는 근지러움으로 감지했다.

인생이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뒤를 이을 어떤 적절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다만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색채로 뒤범벅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뭉뚱그릴 한마디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봄이 되고 다시 6학년이 되었다.<sup>54)</sup>

---

53) 김윤식,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 (주)한국문학사, 2004, 399쪽.

54) 김윤식,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 (주)한국문학사, 2004, 428쪽.

화자는 인생의 고단한 부피를 절감하며 자신의 육체적 성장을 감지한다. 화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슬프고도 혼곤한 일상의 나날에 대해서 답할 여력은 없다. 다만, 어린 화자는 "인생이란....." 의문을 제기하며 끝나지 않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생'을 어린 화자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화자가 느끼는 '인생'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6학년이 된, 앞으로 펼쳐질 화자의 인생역시 분명하지 않은 '노란'색채의 느낌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결국 6학년인 어린 화자는 얼룩들로 가득한 세계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조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5)</sup>

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고단한 삶은 주로 여성 작가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시기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전쟁 한가운데서 어수룩하게 살아가던 여인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체득하게 되는 삶의 힘겨움을 그리고 있다. 박경리의 「불신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전쟁 후에는 아들까지 잃게 되어 정신과 신체가 모두 황량하게 지쳐버린 주인공 진영의 시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다루고 있다. 진영은 자신의 고난을 잊기 위해 종교에 매달린다. 그러나 그가 찾은 종교도 거짓과 허영만 가득한 부패한 곳이었다. 그녀가 본 것은 시주 받은 쌀을 착복하는 중과도적 맞을까봐 신발을 싸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뿐이었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 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  
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중략)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  
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sup>56)</sup>

---

55) 유임하, 『기억의 심연』, 이회, 2002, 229쪽.

진영은 종교를 통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아이의 영혼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분노한다. 진영은 그 부당함에 항거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은 자신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며, 죽은 아이의 사진을 불사르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이렇게 생활의 어려움과 돈만 아는 각박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남편의 부재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회의, 자기반성을 거쳐 새롭게 살게 대한 용기를 다짐하게 된다.<sup>57)</sup>

## ②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내면의 파괴

전쟁에 대한 작가들의 비극적 인식은 문학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영되어 드러난다. 전쟁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단숨에 인류의 행복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에서부터 짓밟아놓는 가공할 폭력과 파괴의 도구이다. 작가들은 전쟁의 비인간적 상황과 전투라는 극렬한 행위를 인해 인간 내면의 파괴에 초점을 두었다. 비인간화, 살상, 방황 등과 같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깊이 고민하였고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였다.<sup>58)</sup>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전쟁 중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 죽음 등 인간실존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오상원의 「유예」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비인간성,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강인한 본능적인 생명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56) 김동인 외, 『한국 현대 단편 소설 33』, 도서출판 맑은창, 2005, 361쪽.

57) 이정숙, 「전쟁, 그리고 상처 극복의 몸부림-1950년대 전후소설의 개관」, 『한국 소설의 얼굴-라울전 외, 4』, 푸른사상, 2007, 299쪽.

58)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 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38쪽.

소설 속 주인공, 국군 소대장인 ‘그’는 적의 배후 깊숙이 침투했다가 적의 포로가 된다. ‘그’는 ‘움 속 감방’에 갇혀 한 시간 동안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과정을 회상하다가 전향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이 소설은 죽음을 앞둔 ‘그’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독백 형식으로 소설이 이루어져 있다.

‘그’는 적의 전향 제안에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이 행동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가 아닌란 점은 분명하다. 작가는 죽음을 택하는 ‘그’의 행동을 직접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휴머니즘의 자세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써 보여 준 것이다. 총탄을 재는 사수 앞에서도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한 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을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라고 다짐한다.

피살당하러 가는 포로를 외면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포로를 구하는 것은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라는 인간주의 때문이며, 그렇기에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생과 사, 존재와 부재를 초극하는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이처럼 오상원은 전쟁이 주는 비극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존의지를 내세움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유, 실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발탄」 역시 전쟁의 아픔으로 인간적 삶의 기본 방향을 상실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소설은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남산 자락 ‘산비탈을 도려내고

---

59) 유학영, 앞의 책, 150쪽.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 있는' 해방촌에 살고 있는 철호네 가족이야기다.<sup>60)</sup> 여기에 속하는 인간상은 '불구적 인간상'으로 대체로 전후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고 폐쇄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잉여인간의 존재로 머무른다. 그들은 사회와의 단절감 속에서 패배적인 삶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자아와 세계사이의 조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항복하든지 외경하는 상태를 보여준다.<sup>61)</sup> 결국 이 작품은 전쟁 속에 적응하지 못한 피폐해진 인간의 실존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비오는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소설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남매가 등장한다. 이들을 바라보는 또 한명의 인물도 등장한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의 모습은 '비오는 날'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암울하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연출하며 슬픔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자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비록 맑은 날 일지라도 동욱의 오누이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있는 인생들

---

60) 이정숙, 「전쟁, 그리고 상처 극복의 몸부림-1950년대 전후소설의 개관」, 『한국 소설의 얼굴-라울전 외, 4』, 푸른사상, 2007, 298쪽.

61) 유학영, 앞의 책, 80쪽.

이었다.<sup>62)</sup>

비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때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다미 여덟 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관 바르듯한 것이었다. 한켠 천장에서는 썰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바께쓰가 놓여 있었다. (중략)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 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께쓰에 차츰 물이 늘어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sup>63)</sup>

남매가 사는 모습은 별다른 서사 없이도 인간적 삶의 조건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배경묘사는 소설의 주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쟁이 만들어 낸 사회의 폐허 상태는 개인의 내면까지도 파괴시켰고 우울함, 무기력 등과 같은 심리적 패배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소설속의 심리적 패배감의 상처가 큰 인물은 동욱이다. 그는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한 엘리트이다. 게다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몇몇 교회에서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한 지도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술잔을 기울이며 변변한 직장도 없는 초라한 인물이다. 대학 졸업장과 오랜 시간의 신앙도 ‘비에 젖은 인생’에서 그를 구원하진 못했다. 그리고 우울한 자신의 삶을 뛰어넘고자 하는 삶의 의지도 상실하였다. 지금의 동욱은 ‘닝글닝글한 웃음’을 웃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인간애를 상실한 모습만 갖고 있을 뿐이다. 특히 자신의 여동생에게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멍꽂이 같은 년, 글썽 이게 집이라구 믿구

---

62) 권일경 외, 『소설문학 4- 문학자습서』, 천재교육, 2008, 196쪽.

63)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상)』, 천재교육, 2002, 193쪽.

돈을 쥐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이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이백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나구, 그래, 내가 없으면 네년이 굶어 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립으로 살아?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sup>64)</sup>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오는 날」의 소설적 양상은 절망적 상황 밑에서 생존을 위해 행하게 되는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위가 당시 하층민의 생존 방식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제도적 억압에 짓눌린 시대 상황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들이 이들의 행위를 결코 도덕적인 규율 하에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당대 현실의 아이러니를 밀도 있게 포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존이나 타락이나의 차원을 넘어서 그 선택의 불가피한 운명성을 당시 현실의 정확한 재현을 통해 자동적으로 제시해 주려는 현실의 총체적 형상화를 향한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소설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전후사회의 타락한 삶의 양식을 개별적인 문제로 고착시키지 않고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로 귀착시킴으로써 고발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sup>65)</sup>

「그해겨울은 따뜻했네」는 전쟁이 소시민의 삶을 왜곡하는 허위의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 수지와 오빠 수철은 1·4후퇴의 경황없는 와중에 여동생 수인을 놓치게 된다. 피난민이 넘쳐나는 길거리에서 동생의 손목을 놓아버렸고,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행히도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수지와 수철은 사회적인 성공을

64) 김동인 외, 『한국 현대 단편 소설 33』, 도서출판 맑은창, 2005, 344쪽.

65) 유학영, 앞의 책, 228쪽.

거두고 어엿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 또 그러한 생활에 어울리는 적당한 허영심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오목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자가 자기의 친동생 수인임을 알게 된다.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잃어버렸던 혈육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오목이가 너무 가난한 데다 자식이 다섯이나 되어 자기가 친언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자신이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생 수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지의 허영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오목이는 단지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흔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수지의 오빠 수철은 이보다도 더욱 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처음에는 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듯하나, 사실은 동생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오목이가 친동생임을 알았을 때도 그녀를 외면했던 것은 ‘정체모를 고아를 내가 애써 가꾼 오בות한 가정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데 있다. 결국 수지와 수철에게 오목은 자신의 성공에 발목을 잡는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오목은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전쟁을 딛고 일어난 세대들의 허위의식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과거의 상처를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락한 생활에 취해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이중적인 심리의 소유자들이고, 또 사랑과 연민을 앞세우면서도 과거의 기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언니와 오빠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오목, 수인이는 고아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굶기야 가난과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세 남매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작가는 전쟁의 상처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허위의식으로 부활하여 자신을 기만하고 있음을

갈파해 낸다.<sup>66)</sup>

작가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가족사적 불행을 구체화시켰으며, 아울러 물질만능주의의 삶 속에서 팽배해진 중산층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즉, 이산가족들 찾기의 한 권에는 이들을 일부러 외면하며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 하지 않는 인간의 허영심, 기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 파괴가 근본적으로 전쟁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③ 실향과 이산의 비극

「똥아지는 살들」은 실향민의 비극과 망향의식을 그린 작품이다. 5월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은 늘 그러했듯이 남하(南下)하면서 북에 두고 온 맏딸을 기다리고 있다. 조용하고 쓸렁한 집안에는 은행에서 은퇴한 반백치의 늙은 가장과 묵묵한 며느리,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는 노처녀 막내 영희, 해외 유학까지 했으나 의욕이 없는 현실 패배주의자인 아들 성식이가 등장한다. 맏딸을 기다리는 동안 집안에는 ‘짱 당 짱 당’ 쇠붙이 소리가 들린다. 자정이 되는 순간 북도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기묘한 웃음을 띤 식모가 나타나 변소에 갔었다고 말한다. 영희는 식모를 가리키며 ‘언니’라고 소리치고 아버지는 허우적거린다.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도 계속 이어진다.

이 작품은 독특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폐쇄되어 가는 어느 가정이다. 가장 아늑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공간은 불안감과 긴장감만 감돌뿐이다. 이는 한 가정을 무대로 20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맏딸을 기다리는 초조함을 형상화하는데 효과적인 장

---

66) 강진호, 「분단문학이 온 길, 그리고 갈 길」, 『동서문학』 제32권 제2호 통권 245호, 동서문학사, 2002, 284쪽.

치이다. 독자는 만팔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는 희망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희망도 없고 외부와의 소통도 없는 이 공간은 가족들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공간과 외부를 구분 짓는 것은 바로 ‘문’이다. 가족들은 모두 ‘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은 언제나 닫혀있고 문을 열고 와야 할 만팔 대신 식모가 들어올 뿐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인 문이 항상 닫혀 있는 것, 여기에 ‘문’의 상징성이 있다. 즉, ‘문’은 잠재적으로는 이 가정을 외부와 연결해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절의 상태를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사물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분단의 문제는 작품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아픔과 상처라는 문제는 이 작품을 관류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다림’의 발단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분단의 문제는 단지 이산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 이후 세대의 소외된 모습으로 확장된다. 폐쇄된 공간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의사소통도 단절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 소설의 제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닿아지는 살들’이 암시하는 마모성에서 현대인의 가족 간의 유대감 상실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 2) 극복의 가능성

### ① 삶의 극복의지

하근찬의 「수난이대」는 ‘삶의 극복의지’를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

품이라 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의 소재는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불구이다. 왼팔을 잃게 된 만도,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다리를 잃게 된 아들의 설정은 눈에 보이는 전쟁의 상처를 의미한다. 아들의 불구를 확인한 만도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한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대물림하게 된 아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인생에 등장한 첫 번째 위기는 외나무다리이다. 그러나 단순히 위기의 의미만은 아니다. 팔을 잃은 아버지가 다리를 잃은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설정은 바로 주제를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유기적 구성의 훌륭한 장치로 작용한다.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에게 외나무다리는 일종의 위기상황이며, 작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를 극복하려는 부자의 의지를 통해 삶의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외나무다리’ 자체는 그 생김새로 볼 때 허술하고 건너는 이에게 불안감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강물 속에 오랜 세월동안 놓여 있었다는 그 항존(恒存)의 강인함이 곧바로 주제와 연결될 수 있다. 즉 비극적 역사의 상징인 동시에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67)</sup> 이를 통해 만도와 그의 아들에 걸친 2대의 불행을 개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적 비극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나무다리 장면을 통해 민족의 수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병신과 머저리」는 6.25전상자인 형의 정신적 고통과 형의 글쓰기를 통

---

67) 김학순, 「‘문학’교과서 소재의 분단소설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30쪽.

한 아픔의 극복과정을 동생의 시각으로 추적해가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아픔의 근원을 알아 치유 가능한 구체적 상처를 가진 형은 ‘병신’으로, 구체적 상처도 없이 권태와 무의미 속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동생은 ‘머저리’로 표상된다. 이 작품에서 이청준은 전쟁의 폭력성이나 조직사회의 폐쇄성 속에 인간이 맞닥뜨렸을 때에 가해져 오는 정신적 억압의 양상과 그에 따라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 즉 선과 악, 살해 욕구, 죄의식, 피해의식 등을 파악해 나간다.<sup>68)</sup>

전쟁의 체험을 생생한 상처로 간직한 형과 다만 관념으로서의 아픔을 지니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동생인 ‘나’를 통해서 아픔의 근원과 그 해소 방법을 형상화 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병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병신’과 삶의 감각을 상실하고도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머저리’의 대립 갈등은 경험과 관념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형은 소설 쓰기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극복한다. 그러나 ‘나’는 환부를 알지 못해 패배감만 짊어가며 형의 글쓰기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전쟁의 아픔을 개인의 차원에서 섬세하게 접근함으로써 추상성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의 아픔’을 당사자와 동생인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깊게 다룸으로써 본질적인 치유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sup>69)</sup> 이를 통해 작가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주인공의 대립을 통해 전쟁이란 누구의 잘못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는 명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68) 장현숙, 「자유와 절망의 꽃, 그리움으로 피어나다.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소설의 얼굴-모래톱 이야기 외, 6』, 푸른사상, 2007, 285쪽.

69) 김학순, 앞의 논문, 32쪽.

## ② 이념의 허구성 지양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반공주의를 국가의 주 이념으로 설정한다. 여기서의 반공주의는 중세의 마녀사냥과도 같은 공포로 작가의 창의력과 위엄을 억압하는 강력한 폭압의 도구로 작용한다. 그 일련의 과정은 타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광기의 역사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된 것이다. 작가란 외부 현실과의 교섭을 통해서 형성되는 상황적 존재들이고 따라서 문학은 그런 시대 환경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학의 높은 성취는 그에 대한 작가들의 부단한 도전과 극복의 산물이다.<sup>70)</sup> 하지만 사회를 반영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대 대다수의 문인들이 피폐한 사회를 반영하는데 몰두하였다면 이 작품들은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념 갈등의 극복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친 작품은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다. 사실 온전한 극복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공주의의 내면화를 인식이라도 한 듯, 주입된 이념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작가의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다. 작가는 갈등의 원인인 이념을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분단을 하나의 인식론적 목표로서 상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냈다는 점에서 가장 '60년대적'인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sup>71)</sup>

그는 남, 북 어디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남쪽'의 이념을 택할 것을 강조하는 우리 시대 상황에서 매우 획기적인 문학적 반응이었다. 주인공 이명준은 늘 자기만의 밀실에 들어앉아있는 인물이다. 북

---

70) 강진호, 「반공 사회의 규율과 문학의 증언」, 『현대소설 연구 2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28쪽.

71) 유임하, 앞의 책, 104쪽.

한에 있는 아버지를 이유로 그는 경찰서에 불려가 구타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남한사회에 결국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북한역시 그에게 완전한 구원의 공간은 아니었다. 이처럼 이명준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 보상받지만 그마저도 은혜의 죽음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 남과 북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중립국을 선택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낮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sup>72)</sup>

하지만 그는 중립국역시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공간이 아님을 깨닫는다. 중립국을 향해 가는 상선에서 그는 사랑했던 은혜와 자신의 아이의 환영을 보고 비로소 진정한 삶의 방향을 깨닫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현실의 도피와도 같은 자살은 이데올로기 한계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일종의 극복의지로 볼 수 있다. 이명준은 이념의 허구성과 그 폭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냉전 체제적 분단인식 방법론에서 첫 탈출을 시도한 「광장」은 시선을 역사 전체로 돌리게 만들

---

72) 권일경 외, 앞의 책, 196쪽, 237쪽.

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은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가치 판단 없이 이데올로기 문제와 그 비극을 다루고 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인공 소년의 아버지는 좌익으로 일본 유학까지 한 지식인이다. 그는 한때 야학을 벌여 계몽 사업에 헌신하기도 했으며 해방 이후 좌우익이 극렬하게 대립함에 따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쫓기는 생활을 한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못하므로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거느리고 생계를 도맡아야 한다. 경찰의 추적이 집요해지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깊은 밤중에만 잠시 왔다 사라지곤 한다. "산도둑같이 텃석부리로, 또는 선생처럼 국방복을 입고 문득 나타났다 껌싸게 사라져 버리는 요술쟁이 아버지" 이처럼 소년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요술쟁이로 인식하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을 소년의 시선을 통해 포착하고 있는데 이런 소설적 장치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가지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지양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먼저 「장마」를 살펴보도록 하자. 분단소설의 대표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이 소설은 외할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눈을 빌려 서술되고 있다. 갈등은 외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발생한다. 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이고 외할머니의 아들은 국군이였기 때문에 두 할머니들은 갈등한다. 갈등이 심화된 것은 빨치산 토벌로 외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걱정하여 빨치산이 어서 토벌되길 바라고 반면 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게 된다. 사실 두 할머니들은 자신의 아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념의 실체도 모른 채 서로를 질시하게 되는 것이다. 한 지붕아래 서로 다른 이념의 차이로 서로를 저주하는 형상이 되어버린 양상은 남한과 북한의 대립과 닮아있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모성에서 두 할머니는 상대를 배려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를 통해 작가는 화해와 관용보다는 어느 하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를 꼬집고 있다.<sup>73)</sup> 그러나 두 할머니는 극적화해를 이룬다. 그 중심에는 민족의 전통 정서인 ‘뱀’이 자리 잡고 있다.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할머니가 상심해 있는 동안 집안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온다. 이를 본 외할머니는 사돈네 아들의 혼령으로 인식하고 구렁이의 갈 길을 인도한다. 이를 본 할머니는 극적으로 외할머니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 냈으므로 이 작품은 분단극복의 의지를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두 할머니의 대립을 통해 무지한 일반인들이 이념의 실체도 모른 채 조종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정서를 나타내는 구렁이를 통해 화해함으로써 대립하는 남북의 화해를 내다보고 있다.

당시 대다수의 작품들이 분단 현실에 대한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하는데 비해 이 작품은 극복의 희망을 그려냄으로써 분단문학의 대표작으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복의지는 황순원의 「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73) 강진호, 「교과서·문학 교육·교사 :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역락, 2002, 5쪽.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우정을 보여줌으로써 동족간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한 피 흘림이 아니라는 사실과 동시에 분단이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데올로기로 인한 동족 사이의 갈등을 우의와 화해를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릴 적 친한 친구사이였던 덕재와 성삼은 이념의 차이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마」의 할머니들처럼 덕재와 성삼은 분명한 이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농민으로서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낼 뿐 일방적인 이념의 외침은 찾기 힘들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 데다가 근농군이라고 해서 농민 동맹 부위 원장이 됐든 그게 죽을죄라면 하는 수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란 간댓자 별 수 있는것두 아니구....”<sup>74)</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삼과 덕재는 이데올로기 관심보다는 ‘농사꾼’이라는 동질감과 우정이 우선한다. 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 즐겨 하던 ‘학 사냥’을 통해 갈등을 화해로 극복하고 있다. 우정을 통해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이 우정으로 화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너무도 단순한 극복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해결방법이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될 만하지만 역으로 이념이란 우정으로도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일종의 균중이 만들어 낸 허무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여기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

74) 유학영, 앞의 책, 210쪽, 재인용.

이념이란 「장마」의 할머니들, 「학」의 두 주인공이 그랬듯이 일반인들은 파악하기조차 힘든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는 것이다. 그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이 따라갈 하나의 이념을 만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주입하면서 집단의 사고와 성격을 유지해 나간다. 무언가 좇을만한 이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이 만든 것이 바로 이념인 것이다. 실로 이념은 한 집단의 동질감을 형성케 하고 타자를 적대시 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은 결국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균중이 만들어낸 허무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이념이 존재하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념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극단적 시각을 제공할 위험이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기에 회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위 작품에서는 ‘구렁이’, ‘학’을 통해 이념의 허구성을 뛰어넘는 민족의 동질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교과서 내용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양상 및 주제별 형상화를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보고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문학적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보다 더욱 진보된 모습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분단소설을 실었다. 그리고 곧 7차 교육과정이 그 수명을 다하고 교육흐름의 역사로 접어드는 시점에 보다 나은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분단소설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1. 작품수록의 적절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종 문학교과서에는 20작품이 넘는 수의 많은 분단 소설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수록된 그 양상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분단소설로서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가치가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작품 성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18종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수록 작품을 보면 어느 한 작가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22편중에서 작가는 모두 15명이다. 그 중 황순원과 박완서의 작품이 각각 4편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호철의 작품이 2편이었다. 6차 교육과정<sup>75)</sup>의 경우 수록된 분단소설 15편 중 12명의 작가가 있는데 황순원의 작품이 4편으로 가장 많이 실려 있다. 그러나 나머지 작가들의 작품은 1편씩만 실려 있다. 6차와 7차 모두 황순원의 작품이 가장 많이 실렸음을 볼 수 있다. 7차에서는 「카인의 후예」가 빠지고 새롭게 「너와 나만의 시간」을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많은 작품이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박완서의 작품이 많이 추가된 점이다. 그동안의 교과서가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수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작가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박완서의 작품이 대거 실린 것이다. 여성작가에 대한 인식의 성숙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지만 작가의 편향이라는 점에서

---

75) 본 논문 14쪽, 각주 31번을 참고.

문제가 있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은 80년대까지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다.<sup>76)</sup> 8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분단소설은 한 작품도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의 분단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분단 극복의 주체는 오늘날의 학습자이다. 하지만 오래된 소설은 분단을 과거의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남북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작품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교과서에 실린 분단소설은 문학기전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시간이 흘러도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문학기전과 문학교육의 정전은 항상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최근에 발표된 작품을 수록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2. 단원 구성 및 학습활동

이어서 교과서 내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단원 구성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개의 교과서 중 6개의 교과서에 통일교육을 위한 소단원 구성이 있었다.

---

76) 『국어』 교과서에는 1980년대 이후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그 예로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문학』 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표 4> 단원명 및 단원 학습목표

출판사	단원명	학습 목표
금성 (하)	Ⅲ. 민족 문학의 흐름 - 6. 광복 이후의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안다.</li> <li>· 이 시기의 문학의 현실대응 양상을 안다.</li> <li>· 이 시기의 한국문학의 갈래와 작품을 안다.</li> <li>· 이 시기의 세계문학의 갈래와 작품을 안다.</li> </ul>
중앙 (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 - 6. 광복 이후의 문화 와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이후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한다.</li> <li>· 광복 이후 문학의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삶을 이해한다.</li> <li>· 광복 이후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읽고 수용한다.</li> </ul>
천재 (하)	Ⅶ.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2) - 3. 광복과 분 단기의 문학 (1945~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학의 변모 양상을 알 수 있다.</li> <li>· 분단 현실이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문학저거 과제를 알 수 있다.</li> </ul>
두산 (하)	Ⅵ. 한국 문학의 발전과 가치화 - 3.통일에 대한 한국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li> <li>· 세계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이해한다.</li> <li>· 한국 문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li> </ul>
문원각 (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 - 6.광복이후의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li> <li>· 분단문학의 특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안다.</li> </ul>
블랙 박스 (하)	Ⅷ.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 해방 후의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비극적 운명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와 허무주의적 분위기를 통해 한국 문학사에서 6·25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li> </ul>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6개의 교과서 모두 분단문학에 관한 단원은 소 단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국 문학의 흐름 중 ‘광복 이후의 문학’을 다루는

교과서는 5개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18개의 교과서중 6개의 교과서에  
만 구성된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다. 많은 수의 분단소설을 수록한 교  
과서라 할지라도 분단소설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배우기보다는 소설  
의 구성요소를 알기위한 자료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광복이  
후의 문학을 주제로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도 그 내용은 상당히 아  
쉬움을 주고 있다. 분단소설이 1편만 실려 있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었기 때  
문이다. 광복 이후의 문학을 다루다 보니 분단소설을 많이 수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 한편의 수록만으로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  
렵고 분단소설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문학은 분단문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분  
단은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거대한 담론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인식하고 연구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  
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두산출판사이다. 두산은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통일을 위한  
한국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분단문학을 민족 문학사에 구  
성요소로 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학습목표는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단원명부터 시작하여 학습목표에 이르기까지 단원 구성의 방향이 매우 통  
일교육 지향적임을 볼 수 있다. 학습자에게 통일의 극복의지를 심어 줄 수  
있고 문학을 통한 분단극복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단원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 단원을 수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은 다음과 같다.

#### <준비활동>

1. 각자 경험한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남북한의 음식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남북한의 공연 예술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남북한의 언어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2.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남북한 국민이 만난 자리에서 불리어지는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남북한에서 함께 유행하는 노래를 조사해 보자
  - 남북한에서 함께 불리는 노래의 특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3. 북한의 문학 작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의 문학 작품을 조사해 보자.<sup>77)</sup>

준비활동을 볼 때 두산교과서는 매우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sup>78)</sup>를 한 결과 많은 학습자들은 북한과의 생활방식, 문화, 정치 등의 현실적 괴리감을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과서에는 현실적인 측면의 통일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윤리 혹은 사회과목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문학을 통한 현실측면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교과서에서도 이 점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문과 학습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습활동은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작품만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만큼 학습활동은 중요한 수업활동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은 작품에 대해 적절하고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

77)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 두산, 2002, 366쪽.

78)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본 논문 III-3 항목에 실려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면 문학 교과서 속 학습활동은 적절한가?

전반적으로 분단소설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은 적절했다. 학생들이 작품의 주요사건을 알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많았으며 그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까지 생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학습활동도 있었다.

먼저 중앙(상)의 「어둠의 혼」에 해당하는 활동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I. 문학의 본질 - 1. 문학의 본질과 특성 - (2) 문학과 삶’에 실려 있다. 단원의 학습목표는 2가지로 ‘1. 문학과 언어, 문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2.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구조물임을 이해한다.’이다. 문제점은 바로 지문에 대한 학습활동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문에 대한 학습활동영역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품의 지문이 너무 짧게 실려 있어 작품의 가치와 주제를 알기에 한계가 있었다. 「어둠의 혼」 역시 지문 길이는 12줄에 불과하였고 학습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작품을 깊게 이해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둠의 혼」 앞에 ‘문학과 삶’이란 단원을 짧게 소개하고 바로 작품을 실어놓았다. 소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소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할 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런 재구성을 통해 문학이 형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작품이 「어둠의 혼」이다. 그런데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어린 ‘나’가 이모부 손에 이끌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며 작품의 표현대로 ‘온몸을 와들와들’떨고 있었다. 이런 장면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좌익 운동에 가담한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그 시체를 확인하는 장면은 성인이 보아도 오싹하고 공포심을 자아낸다. 물론 이 작품 전체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 분단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줄의 지문으

로 그것도 가장 무섭고 잔인한 장면을 제시하고 ‘상상력’을 이야기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그리고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전쟁의 잔인함과 공포만 느낄 것이다.

이어서 문원각(하)에 실린 「엄마의 말뚝」을 보도록 하겠다. 단원명과 학습목표는 위의 <표 4>에 나타나 있으므로 생각하겠다.

교과서에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소원을 말하는 소설 마지막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난 비극적 체험에 대한 극복의지와 모녀간 공감은 작가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sup>79)</sup>

#### 학습활동

##### [감상과 반응]

1. ‘엄마의 말뚝’을 감상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 1) 화장을 시켜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 2) 마지막 대목에 ‘투병 중’이라고 말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 3) 제목이 된 ‘엄마의 말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 [목표다지기]

1. 분단문학이란 6·25전쟁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설 작품을 찾아보자.<sup>80)</sup>

[감상과 반응]의 질문 내용은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

79) 하가림, 「분단소설 교육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59쪽.

80)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문원각, 2002, 236쪽.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2)의 질문을 통해 본문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분단소설로서 상징성까지도 연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다지기]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가 ‘분단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단순히 분단문학의 소설을 찾아보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분단문학의 특징은 곧 분단문학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데 분단문학은 ‘분단극복’의 지향, 거기에 분단문학의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분단문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교과서 [도움자료]에는 분단문학의 전개양상을 간략히 적어놓았다. ‘1950년 · 60년대 분단문학은 작가의 직접 전쟁 체험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 고통 등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다가 1970·80년대로 접어들면 유·소년기의 간접 체험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아픔 등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 또한 분단문학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분단문학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문원각(상)의 「비오는 날」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 - 3. 소설의 사건과 배경’에 첫 번째 소단원에 실려 있다. 학습목표는 ‘1. 소설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안다. 2. 소설에 나타난 배경을 파악한다. 3. 인과 관계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소설을 지을 수 있다.’이다. 그리고 본문을 나가기 전 [감상하기 전에]부분에 학습의 주안점을 밝히고 있다. ‘· 소설의 배경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 소설의 배경이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이다. 본문의 내용은 원구가 동욱과 동욱을 만나고 그들의 집에 방문한 것부터 시작한다. 특히 동욱과 동욱의 사는 형편과 인물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 [감상과 반응]

1. ‘비오는 날’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자.

- (1)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정리해 보자.
  - (2) 인물의 성격과 삶의 조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동옥이가 원구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을 상상하여 써보자.

[목표다지기]

1. ‘비오는 날’의 사건 전개 과정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2. 이 소설의 배경이 주제를 나타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자.

[감상 넓히기]

1. 다음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일부분이다. 이 소설의 배경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오는 날’의 배경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2. 다음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의 일부분이다. 이 소설의 처음 부분에 제시되는 배경이 이후의 사건 전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토의해 보자.<sup>81)</sup>

학습활동을 보면 단원의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인물의 성격과 특히 배경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소설 2편을 더 소개하여 서로 비교하고 추측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한 측면만 고려한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아쉽기도 하다. 사실 이 작품은 배경묘사가 뛰어나고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중요함은 사실이나 전후소설로서 당시 사회의 폐함과 절망적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

81)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상)』, (주)문원각, 2002, 194쪽.

대한 천착 없이 배경의 상징,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다지기]의 1번을 보면 소설 전체의 사건 전개과정을 묻고 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사실 소설의 중심 사건을 알아보는 것은 전체 줄기를 잡는 것으로 소설의 첫 번째 분석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뒷부분에 실려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전문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단원의 목표설정, 학습의 주안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천재(하)의 「유예」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작품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광복과 분단기의 문학’ 부분에 실려 있다. 이에 따라 제시된 학습목표는 단원명과 잘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유예」의 학습주안점은 학습목표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 [학습주안점]

이 작품은 포로가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물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 방법과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서술 방법이 이 작품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sup>82)</sup>

학습 주안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기법은 이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의 ‘내용학습’에서 다루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학습주안점에 이야기 하는 것은 작품의 분석방향을 이미 정해준 것으로 분단소설로서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학습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

82)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천재교육, 2002, 212쪽.

다음으로 한국교육 미디어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8. 가치관의 변화와 문학의 다원화'에 수록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화시대 문학의 일반적 성격을 안다. 2. 산업화시대 문학의 흐름과 그 양상을 이해한다. 3. 이시기 세계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과 교섭양상을 이해한다.' 이어서 본문을 학습하기 전 학습의 주안점을 살펴보자.

[학습의 주안점]

6·25전쟁 중에 헤어졌던 자매가 다시 만나 겪는 갈등과 애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여기 실린 부분은 오목이 죽는 결말 대목이다. 전쟁의 비극이 인간의 삶에 미친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자.<sup>83)</sup>

먼저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산업화시대 문학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화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실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산업화시대 문학의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작품은 산업화시대에 쓰인 작품이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비극에 있다. 산업화시대의 문학으로 부르기에 전쟁의 비중이 꽤 크다. 특히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산업화시대와 전쟁은 시간적 간격이 크다. 그러므로 학습목표와 학습의 주안점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중서림의 「나목」을 살펴보겠다. 이 작품은 'Ⅳ. 문학 문화의 발전 - 1. 문학의 인접영역'에 실려 있다. 학습목표는 '1. 문화의 틀 안에서 문학이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를 이해한다. 2. 여러 영역의 정신활동을 문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3. 문학과 다른 영역의 정신활동을 통합적으로

---

83)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한국교육미디어, 2002, 281쪽.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마지막 부분으로 주인공 ‘나’가 과거 옥희도씨의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닫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소설의 핵심 장면이기도 한데 ‘고목’과 ‘나목’의 상징성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고목’은 메말라 생명력이 고갈된 나무로 죽음의 이미지다. 그러나 ‘나목’은 비록 벌거벗은 나무의 모습이지만 봄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미지다. 즉 이 작품은 분단극복의 의지와 희망이 담긴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박수근 화가의 그림 ‘나무와 두 여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문화가 만나 또 다른 예술을 생산하는 것은 예술의 폭을 더욱 넓혀주고 보다 깊이 있는 창작활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과 예술과의 만남을 해석하는 독자는 그에 맞는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민중서림은 다른 영역의 문화가 만난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작품을 통한 작가의 의지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습활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학습활동의 2번 ‘여러 영역의 정신활동을 문학의 관점에서 해석 한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여러 영역의 정신활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영역을 문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능하고 적절한 활동이 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학습자에게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난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학습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2-3. 편향적 시각

분단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 남한 군과 인민군의 등장이 잦다. 이들은 서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독자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서로를 적대시해야 하는 아픔과 비극적 상황을 공감하게 된다. 더불어 전쟁의 잔혹함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남한 군과 인민군 묘사 중 인민군에 대해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잔인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자연히 남한 편에 서서 인민군을 바라보게 되고 이때 인민군의 폭력 앞에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 이는 반공이념과 맞물려 그동안 레드공포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러한 편향적 인물형상은 당시 현실의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극단적인 반공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예로 윤흥길의 「장마」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 3학년 소년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한 집안의 수난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중심 갈등의 원인은 사실상 외삼촌과 삼촌의 대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외할머니의 아들, 외삼촌은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할머니의 아들 삼촌은 빨치산이 되었다. 빨치산이 모두 소탕되고 있는 때라 가족들은 모두 삼촌도 죽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할머니만은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뿔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가! 나무 틈새기에 얹던 뿔갱이 솟덩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번 더, 한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할머니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사돈의 불화는 가정과 친척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확대된다. 즉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불화는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의 분열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편향적 형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할머니의 뇌리에서 묵은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과장되고 더러는 필요이상으로 미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한다 해도 그가 남달리 축구에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떠받침을 당했다는 것 등은 모두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멋쟁이였다. 별에 장시간 내맡겨도 그을지 않을 사기처럼 하얀 얼굴 바탕에 지나치리만큼 오뎅한 콧날과 짙은 눈썹이 유난했다. 알이 총총 들어박힌 옥수수를 연상케 하는 가지런한 이를 내보이며 웃는 모습과 다리가 길고 상체는 알맞게 균형이 잡힌 해사한 몸집에서 어딘지 모르게 도회인들이 갖는 귀공자다운 면모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중략)

짧은 기간의 접촉을 가지면서 내가 그에게 품은 건 한 사람의 피붙이로서 느끼는 친근한 정이기보다 차라리 존경심 쪽이었다. 어린 나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확실히 그에게는 있었다. 단정한 용모나 말씨에서 풍기는 섬세한 동작과 차가운 결단은 과시 사내의 사내였다. 그만한 나이에 벌써 조직을 이끌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그의 비범한 면을 결정적으로 장식하는 후광과도 같은 구실을 했다. 한 인간의 내부에 공조하는 갖가지 이질적인 능력의 신기한 배합이 내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였다.<sup>84)</sup>

앞에 제시한 인용문은 작품에 나타나는 우익의 국군장교 외삼촌을 완벽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외삼촌을 향해서 아낌없는 찬사

---

84) 윤홍길, 『장마』, 민음사, 2003, 53쪽.

와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삼촌에 대한 부분은 외삼촌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삼촌은 외삼촌보다 세 살 위였다. 나이는 많아도 하는 짓들이 어떻게 보면 영락없는 어린애였다. 그가 사변 전에 밀주나 밀도살을 심하게 단속해서 마을의 원성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을 용케 잡아다가 족친 이야기는 인근에서 한때 유명했다. (중략)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랬다. 삼촌이 부역 행위가 술김에 최주사네 담을 넘는 거와 한 가지 경우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타고난 맹목성을 부채질하여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간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냥 흥청거려 본 것이라면 외삼촌의 우익활동이나 그 후의 장교 후보생 자원은 움직일 수 없는 주의 주장 밑에 치밀한 계산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붉은 완장을 차는 건 못 배우고 가난하게 큰 자기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삼촌은 세 살이나 아래인 외삼촌을 존경하고 대우했다. (중략)

결국 외삼촌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렇게나 정이 두터운 것 같던 삼촌도 끝내는 인공 치하가 물러가던 저 광란의 날 새벽에 사라들을 시켜 땅굴을 덮치게 했다.<sup>85)</sup>

윤홍길은 외삼촌의 묘사 후 대조를 통해 삼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삼촌과 달리 삼촌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외삼촌이 ‘신중’하게 우익을 선택한 것이라면 삼촌은 ‘기분’으로 좌익을 선택한 인물이다. 외삼촌이 ‘사내 중 사내’라면 삼촌은 ‘어린애’이다. 외삼촌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 하는 귀공자’라면 삼촌은 ‘못 배우고 가난하게 큰 사람’이다. 이러한 대조적인 인물 묘사는 삼촌이 외삼촌이 숨어있던 땅굴을 습격하

---

85) 윤홍길, 앞의 책, 54-55쪽.

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극대화 된다. 삼촌이 외삼촌을 배신함으로써 인물 형상화는 더욱 대립적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형상화는 다분히 작가의 의도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작품의 결말에서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역할을 대신 하면서 호혜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점도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86)</sup>

다음으로 오상원의 「유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작품은 포로가 되어 죽음을 앞둔 한 인물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도 역시 적군에 관한 묘사가 등장한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른다. (중략)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메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이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 되어 문혀 갈 뿐이다.<sup>87)</sup>

위의 인용문을 읽다 보면 눈길을 걸어가는 포로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총을 장전하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인민군의 모습을 자연스

---

86) 강명순, 앞의 논문, 25쪽.

87)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하)』, (주) 천재교육, 2002, 213쪽.

럽게 떠올릴 수 있다. 주인공 ‘나’는 한 시간의 유예 후 수많은 국군이 사살된 것처럼 죽어갈 것이다. ‘나’는 죽음 앞에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일종의 자기주문을 되뇌는다. 이렇듯 국군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적군은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 따윈 관심도 없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처럼 인간의 죽음은 벌레의 죽음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인민군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민군에 대해 대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실 전쟁은 국군, 인민군 모두를 무자비한 살인기계로 만들었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 즉 전쟁의 잔인한 살상은 인민군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에서와 같은 설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황순원의 「학」에도 편향적 시각이 나타난다. 두 주인공 성삼과 덕재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둘도 없는 친구사이다. 그러나 둘은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편향적 시각이 드러난다.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덕재는 치안 대원에게 발각되고 성삼의 손에 이끌려 호송되는 장면의 대화를 살펴보자.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 문 담배를 집어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를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중략)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나?”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sup>88)</sup>

성삼이는 덕재에게 그동안 몇 명의 사람을 죽였냐고 묻고 있다. 이념의 대답을 피부로 체험한 주인공들의 대화에 독자는 성삼의 질문에 궁금증을 느끼고 그것은 곧 현실일 것이라 착각한다. 즉 아군의 편에 속한 성삼의 물음은 덕재로 대표되는 ‘빨갱이’들은 무차별한 살상을 일삼는 존재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이념적 대답은 서로를 향한 무자비한 살상을 가져왔고 이에 대해서는 ‘빨갱이’뿐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실수요, 아픔이다. 그러나 덕재를 살인자로 몰아붙이는 듯 한 성삼이의 질문은 ‘빨갱이’를 살인 기계로 몰아가는 무의식적인 반공이념이 숨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대화이지만 은연중 나타나는 편향된 이념은 전쟁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덕재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성삼에게 빼앗긴 인물이기도 하다. 마땅히 따라야 할 이념을 거부한 덕재는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치안대원 사람이 아닌 오랜 친구 성삼에게 빼앗긴 사실은 덕재에 대한 묘한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 ‘빨갱이’를 선택한 덕재에게 사랑은 욕심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삼이는 덕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승리자인 셈이다. 따라야 할 이념을 따른 보상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인물이 성삼이라는 것이다. 치안 대원에게 끌려오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매우 차갑고 냉정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신을 외면하는 덕재에게 성삼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연다. 과거 덕재와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고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을 먼저 표현한다. 그리고 포승줄을 풀어준다. 여기에 작가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 둘의 화해 장면에서

---

88)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하)』, 지학사, 2002, 337쪽.

포승줄을 풀어주는 역할이 왜 성삼에게 주어진 것인가? 소설을 다 읽다 보면 친구를 놓아준 성삼이는 참으로 정 많고 인간애가 넘치는 인물임을 느낄 수 있다. 화해의 능동적이고 중심적 인물이자 친구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작가의 편향적 시각이 스며든 결과로 볼 수 있다.

#### 2-4. 극복에 대한 의지 결여

분단소설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분단의 현실을 인지하는 것은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시작과도 같다. 하지만 단순히 분단 현실의 인식만으로는 적극적인 통일을 기대하긴 어렵다. 더구나 학습자들은 오랫동안 반공 이념에 간혀있었고 다양한 이념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받아왔다. 때문에 통일을 상상하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극복을 위한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통일극복을 위한 작업은 단연 문학의 몫이다. 문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극복의 가능성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극복의 방법 등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분단소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단소설 중 분단 극복의지를 다룬 작품은 얼마나 될까. 앞서 살펴 본대로 23개의 작품 중 10개의 작품만이 극복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극복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작품들도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보다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 1) 전망의 부재

대표 작품으로 손창섭의 「비오는 날」<sup>89)</sup>이 있다.

이 작품에 그려진 인물, 배경묘사 등을 통해 독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사회 현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빠가 친 동생을 버리고, 동욱이 사창가에 팔려간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상을 통해 인간내면까지 손상시키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사실 작품에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한다. 동욱이 원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이 화해는 모색된다. 그러나 이런 화해의 조짐은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인물로 보이는 원구도 동욱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서 동욱은 군대에 입대하고 동욱은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이 화해의 모색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작품의 결말에서 새로 집주인으로 들어온 사내가 동욱을 사창가에 팔아넘겼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통해 인간 대 인간의 화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얼굴이 고만큼 뻔뻔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 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리키었다.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의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덩굴 우거진 발두둑 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적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sup>90)</sup>

---

89) 이 작품은 1950년대 작품으로 전쟁 직후의 소설이기 때문에 분단극복의 의지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단소설의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문체 삼을 수 있는 것이다.

90) 김동인 외, 『한국 현대 단편 소설33』, 도서출판 맑은창, 346쪽.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볼 때 삶의 기쁨과 활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동욱, 정신적 상처와 장애를 가진 동욱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마는 나약한 인물들뿐이다. 그리고 어린 동욱을 속여 도망치 이웃집 노파, 원구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잘 간수하지 못하여 결국 전달해 주지 못하는 주인 사나이.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과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등장인물들은 삶의 고난을 헤쳐 나갈 방법조차 모르는 비겁하고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나마 가장 정상적 인물로 나타나는 원구마저 비참한 현실에 양심의 외침을 외면하고 만다.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나약한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패배의식은 큰 절망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패배의식은 삶의 활력과 의지를 무력하게 한다.

이렇듯 이 작품은 뚜렷한 결말이 없이 작품을 마무리 하고 전망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부정적, 허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sup>91)</sup> 이런 결말은 학습자에게 과연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분단소설이 학습자에게 한국전쟁 당시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극복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함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이 작품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작품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전후사회의 우울함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 2) 안이한 낙관적 전망

분단극복은 단순히 영토의 완전한 결합, 그 이상을 의미한다. 경제, 문화,

---

91) 강명순, 앞의 논문, 37쪽.

언어, 생활양식 등 남북 간 수많은 차이를 수용하며 인정하는 고된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엄청난 괴리감을 좁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의미한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의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만큼 분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이니 하는 식의 관념적 방법으로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홍해를 건널 도리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있다. 즉 분단극복은 정부의 결정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분단문제에 대한 극복의지가 뒷받침 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분단소설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소설에 나타난 분단극복의지와 같은 태도는 통일로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들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분단극복을 보이는 작품도 낭만적이거나 안이한 태도로 극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윤홍길의 「장마」를 보도록 하자.

이 작품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앞에 서술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비판적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 작품은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한 작품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목부터 분단극복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족사의 비극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장마가 그치고 나면 곧 맑은 하늘과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정상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내재하는 대상이기도 하다.<sup>92)</sup>

이념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적대시하던 두 할머니의 화해는 분단극복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자 화해의 근원적 힘은 두

---

92) 강진호, 「이데올로기의 파괴력과 전통의 복원력 - 윤홍길의 <장마>」, 『문학작품 바로읽기』, 문학사상사, 2003, 106쪽.

할머니 모두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들이 따르는 이념의 실체는 알지 못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둘 다 동일했다. 아들(외삼촌, 삼촌)들은 이념의 차이로 갈등했다면 할머니는 모성 때문에 갈등한 것이다. 두 사람의 모성은 민족의 전통 정서인 뱀을 인도하는 행위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뱀’의 등장으로 통해 민족 보편의 정서를 환기하였고 결국 ‘뱀’은 분단극복의 열쇠로 작용한다.

이 작품을 통해 윤홍길은 분단현실을 구체적 상징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그 극복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분단소설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sup>93)</sup>

그러나 과연 이 작품이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뱀’을 인도하는 행위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뱀’의 등장은 남과 북이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산물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두 할머니가 화해한다는 해결방식은 자칫 통일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원인의 탐색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생략되고 갈등해결 장면만 제시하는 것은 완전한 분단극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언은 귀담아 들은 대목이지만 왜 목숨을 내 놓으면서까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는지, 반대로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고통스러운 빨치산 투쟁에 가담했는지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명되어야 문제 해결의 구체적 가능성이 포착될 것이다.<sup>94)</sup>

이어서 최인훈의 「광장」에도 분단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나타난다.

---

93) 강진호, 「교과서·문학 교육·교사 :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역락, 2002, 6쪽.

94)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408쪽.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막연히 민중적 수난을 가져다 준 재앙으로만 보던 종래의 입장을 훌쩍 뛰어넘어, 이념적 분단인식으로 방향 전환시킨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sup>95)</sup>

그러나 분단극복 의지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이명준의 선택을 살펴보자. 그가 선택한 중립국은 사실 선택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물론 소설 앞부분을 보면 남북 이념 모두 모순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분명한 소신이 없이 일종의 도피처로 선택한 중립국은 좋은 대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 태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sup>96)</sup>

만약 중립국을 택한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었다면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일 수 있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충동적인 선택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중립국을 택한 주인공 이명준은 또 한 번 선택한다. 그는 제 3국으로 가

---

95) 이봉일,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 월인, 2001, 134쪽.

96) 홍신선 외, 앞의 책, 239쪽.

는 배 위에서 바다로 스스로 몸을 던진다. 남북의 이념대립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는 중립국 역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이념에 지나지 않음을 인지하고 바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발견한다. 의미 없는 ‘광장’보다는 사랑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밀실’을 택함으로써 이 작품은 끝난다. 그렇다면 이명준이 뛰어든 바다, “푸른 광장”은 이명준이 꿈꾼 이상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가? 푸른 광장은 적어도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의 진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도달한 푸른 바다의 광장에는 사물자체의 움직임, 즉 사물의 자유만이 존재한다. 어떠한 이념의 개입은 없다. 단, 거기에는 역사가 없다. 즉 이명준의 자살은 역사와 점점 멀어져 감을 의미한다. 이명준은 바다에 뛰어들펬으로써 비로소 은혜와 그녀의 딸을 암시하는 두 마리의 갈매기와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나 “푸른 광장”은 현실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푸른 광장”이 아무리 그들만의 내밀한 공간이자 그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은 환각의 세계에 다름없다.<sup>97)</sup> 이점이 「광장」의 한계점이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광장과 밀실의 조화로운 공간은 결국 환각의 세계로 귀결된다. 이러한 비현실적 공간은 현실극복에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광장」의 이명준은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공간을 현실공간에서는 끝내 찾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죽음의 환원주의 속에 빠져 사회적 부정은 죽음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부정적 효과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sup>98)</sup>

이렇듯 「광장」에 나타난 분단극복은 죽음으로 주인공의 모든 고통과 삶

97) 이상갑, 「분단 극복과 인간 보편의 가치 탐구 - 최인훈의 <광장>」, 『문학작품 바로읽기』, 문학사상사, 2003, 167쪽.

98) 이봉일, 앞의 책, 148쪽.

의 과정이 물거품이 된다. 죽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수 있으나 절대로 합리화 될 수 없는 도피일 뿐이다. 죽음에 이르는 해결방법은 학습자에게 무책임하고 허무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분단의 극복이 죽음으로만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은 무기력함마저 줄 수 있다.

분단극복의 궁극적 지향은 통일 준비에 있음을 기억하고, 관념적이고 안이한 낙관적 시각으로 분단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명준이 꿈꾸던 이상적 공간은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순원의 「학」에서도 분단극복의 안이한 전망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와중에 적으로 만난 어린 시절 친구 성삼과 덕재가 ‘학’을 매개로 이념의 허상을 넘어선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소설이다.<sup>99)</sup> 즉 배경은 전쟁으로 하고 있으나 순수와 낭만성이 짙은 작품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수와 낭만성이 안이한 분단극복을 조성하고 있다.

오랜 친구사이인 성삼과 덕재는 더 이상 친구사이가 아니다. 오히려 적으로 덕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성삼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호송된 후 덕재는 총살 감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삼이는 자신과의 친진스러웠던 동심의 세월을 기억하며 결국 덕재를 속박했던 포승줄을 풀어준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성삼과 덕재의 화해를 가리켜 우정을 통해 민족 내부의 갈등을 극복한 작품<sup>100)</sup>이라 일컫고 있다. 특히 ‘학’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성삼과 덕재가 학을 풀어 주었던 과거의 기억은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 이외는 없다.’는 의식으로 통한다. 즉 학이 우정회복의 매체가 되어 손상된 우정을 치유하는

---

99) 이정숙, 앞의 책, 293쪽.

100)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하)』, 지학사, 2002, 336쪽.

것이다. 학은 예로부터 길조로서 원형적 상징성을 갖는다. 이점에서 「학」은 「장마」와 많이 닮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해결 방식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특히 ‘두 친구의 우정회복이 곧 분단극복 회복’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사실 학의 등장은 분단극복을 위해 설정한 소재라는 느낌마저 준다. 남과 북을 대표하는 성삼과 덕재의 화해는 남과 북의 화해와 상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주인공의 화해방식은 분단이라는 위기를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 옛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함으로 화해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용이하지만 집단의 경우는 분명 다르다. 비록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갖게 된 괴리감은 같은 역사의 공유만으로 극복하기는 힘들다. 즉 이 작품은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방법이 고루하다고 할 수 있다.

## IV.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 1. 분단소설과 학습자의 분단 극복의식<sup>101)</sup>

① 대상 : 문학과목을 이수한 고등학교 3학년

② 조사 학교 및 인원 : 인문계 고등학교

(남자 10명, 여자 61명, 문과생만 대상으로 함)

③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답을 적은 것은 해당 인원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1) 우리민족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5%

②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다. 59%

③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6%

통일을 바라는 학생은 35%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김학순의 논문에 실린 내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통일을 바라는 학생 수<sup>102)</sup>가 더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01) 학습자 인식조사의 문항은 김학순의 논문에서 실시한 양케이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양케이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10여 년간 학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기위해서 이다.

102) 김학순의 논문에서 ①을 선택한 학생은 39.65%이다.

2) 위의 1번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번을 선택한 학생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경제 및 나라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는 25%를 차지하였는데 남북의 통일로 인해 국방비 예산의 절감 등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였다. 두 번째는 남, 북은 원래부터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하는 민족주의 이념을 주입한 교육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민족임을 강조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한 대답은 12%에 해당하고 이와 동일하게 12%를 차지하는 대답으로 바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였다. 분단의 아픔을 가장 많이 피부로 느낄 이산가족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와 ③을 택한 이유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 혼란을 첫째로 꼽았다. 두 번째 대답은 놀라웠다. 바로 막연한 적개심이 두 번째 이유이다. 막연한 적개심을 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은 대답하지 못하였고 몇 명의 학생은 북한의 사상에 강력한 적개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이유 없는 막연한 적개심과 대립의 정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77%
- ② 잘 모르겠다. 21%
- ③ 아니오. 1%

4) 위의 3번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왜 그런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을 우리와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을 선택한 이유로는 같은 역사를 지녔기에 한민족이라고 생각한 학생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글사용이 12%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밌는 답변이었다.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과 같은 경기에서 웬지 모르게 북한을 응원하게 되고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②와 ③을 택한 학생은 이념의 차이를 가장 많이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이념의 차이는 적개심으로도 연결됨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 차이였다.

이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한 민족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1번 항목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을 볼 때 학습자들이 북한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① 화합해야 할 존재 64%
- ② 무섭고 공포감을 주는 존재 5%
- ③ 남한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 23%
- ④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존재 5%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북한을 남한과 화합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북한과의 화합의 가능성이 밝음을 보여준

다. 하지만 이 질문 역시 1)번 항목과 모순됨을 보여준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한 민족임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화합해야 함을 알지만 화합의 실천인 통일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교육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부분이다.

6) 현재 남한이 경계해야 할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 7%
- ② 일본 42%
- ③ 미국 47%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선택한 것을 볼 때 반미 감정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순의 논문에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더 높은 선택을 보이는 데 반해 오늘날에는 반미감정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7번 항목부터는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과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7) 아래의 작품들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입니다.

작품 중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0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줄거리, 주제를 비롯한 작품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표 해 주십시오.

- |                |                   |
|----------------|-------------------|
| - 유예 (오상원)     | -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
| - 나목 (박완서)     | - 오발탄 (이범선)       |
| - 비오는 날 (손창섭)  | - 탈향 (이호철)        |
| - 중국인 거리 (오정희) | - 사수 (전광용)        |

- 닳아지는 살들 (이호철)
- 불신시대 (박경리)
- 광장 (최인훈)
- 수난이대 (하근찬)
- 목님이 마을의 개 (황순원)
- 학 (황순원)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박완서)
- 어둠의 혼 (김원일)
- 장마 (윤홍길)
- 엄마의 말뚝 (박완서)
- 철쭉제 (문순태)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이미 문학과목을 이수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3학생들이라 그런지 거의 모든 작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 중 월등히 인지도가 높은 작품은 윤홍길의 「장마」로 86%의 인지도를 보였다. 이어 이범선의 「오발탄」과 하근찬의 「수난이대」가 84%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최인훈의 「광장」이 58%로 2위를 바짝 뒤쫓고 있고 황순원의 「학」이 57%로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하였다.

8) 위의작품들 중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이어서 나의 일처럼 되새겨 생각해본 소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3%
- ② 없다. 57%

43%의 학생만이 ①을 선택했다. 이는 매우 씩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소설로서는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김학순의 논문에서는 ①을 선택한 학생이 72.4%였음을 볼 때 분단소설 교육의 반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설은 다른 장르에

비해 당대 모습을 면밀히 포착하고 반영하는 장르임을 볼 때 분단소설을 통한 공감과 이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9) 위에 열거된 문학 작품들은 직, 간접적으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다룬 소설들입니다. 이 소설들을 읽고 우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38%
- ② 조금 57%
- ③ 아니오 1%

9번 항목을 통해 『문학』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들이 우리의 분단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10)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이나 분단에 의한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소설들을 읽고 그들의 아픔을 오늘날 나의 아픔이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26%
- ② 별로 53%
- ③ 아니오 18%

우리민족 분단역사의 원인을 아는 것은 분단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단소설을 통한 교육의 방향성과도 연관 있다. 하지만 71%의 학생들은 문학 작품에서 분단의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김학순의 논문에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서 소

재 분단소설들이 학생들의 분단 극복의식 향상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11) 위의 작품들 중 궁극적인 분단의 극복을 주제로 한 소설은 몇 편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없다 11%
- ② 1-5 83%
- ③ 5-15 4%

80% 이상의 학생들이 1-5편의 작품만이 분단의 극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소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분단의 원인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준은 어느 쪽의 이데올로기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다 속으로 빠집니다. 이런 이명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 52%
- ② 부정적 46%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의 행동이 현실 도피적이라는 한계를 이미 배워서 인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13) 「장마」에서는 삼촌의 화신인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잘 인도하는 것으로 집안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는 분단으로 야기된 상처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치유는 우리의 분단 극복에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33%
- ② 별로 40%
- ③ 아니오 23%

63%의 학생들이 「장마」에 나타난 결말은 궁극적으로 분단 극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소설의 결말이 비논리적이고 현실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극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문학』 교과서의 분단 주제 소설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분단의 극복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 ① 예 19%
- ② 별로 47%
- ③ 아니오 31%

78%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결국 『문학』 교과서의 분단 소설들은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의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충분한 공감을 하지 못하였고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도 만족할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분단소설을 통한 문학교육의 한계를 시사한다. 분단소설을 통해 역사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극복의지를 표

방해야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의도대로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임을 말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말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여기에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극단적 이념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을 갖고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통일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민족임을 알고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통일을 거부하는 학습자들이 상당수였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없어서기도 하고 통일 후의 모든 삶에 대한 고찰이 학습자에게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소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분단소설을 통해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고 나아가 극복의지를 통해 통일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소설을 통한 통일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질문들만으로 분단소설이 학생들의 분단 극복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교과서 소재 소설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질문들만으로 분단소설이 학생들의 분단 극복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교과서 소재 소설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 2.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

앞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분단문학의 교육적 성과와 분단극복을 위한 학습자의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학습자들은 분단극복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였지만 실천적 의식은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북한

을 한 민족이라 생각하지만 통일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았다. 즉 본래부터 한 민족이었다는 지난 역사의 공유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를 적대시 하고 철저히 타자화한 결과는 심각한 이질성을 만들었다. 그 괴리감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두려움마저 주는 게 현실이다. 왜곡된 이념 속에 그것이 진리인양 속으며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참된 진리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비단 전문가의 역할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전 국민적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분단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분단 극복의 길이 멀고 험할 지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분단소설의 첫 번째 의의가 담겨있다.

분단해소가 절실한 작금의 시점에서 분단문학이 여전히 현실성을 발휘<sup>103)</sup> 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단극복에 대한 주제의식에 있을 것이다. 즉 분단문학 교육은 분단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의 현실을 인지하여 이를 화해와 공존의 현실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 III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단소설은 전후 피폐한 현실에 대한 천착, 인간 실존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해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분단문학의 또 다른 의의는 이념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의 지난 정권은 반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을 정복의 대상, 남한정권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강조했다. 이런 왜곡된 이념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남한위주의 통일을 꿈꾸고 계획해왔다. 즉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의 입장에 경도된

---

103) 강진호 외, 『문학작품 바로읽기』, 문학사상사, 2003, 119쪽.

것이다.<sup>104)</sup> 이는 아이러니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래를 함께 합창하면서 사회주의 혹은 북한에 대한 발설은 모두 반민족적 행위로 치부되어 억압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사회의 모순을 깨고자 한 것이 바로 분단문학이다. 물론 분단소설에도 남한이데올로기에 물들어진 소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인이자 예술가이기도 한 작가들은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고 그 도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낡고 더러워진 것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결국 작가는 분단소설을 통해 입으로는 새로운 시대, 통일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의 낡은 정신을 고수하는 아이러니의 세대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사회의 닫힌 생각에 일침을 가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남한이념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이념을 인정하는 객관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잔혹함과 몰인정이 북한에만 있다는 시각을 부정한다. 남북 모두 자신의 이념을 앞세워 상대를 부정한 결과 이념의 하수인 노릇만 한 것을 비판한다. 이런 객관적 시각은 과거의 냉전의식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편향에서 벗어나 좀 더 온당한 시각에서 과거사를 재조명함을 시사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이다.

마지막으로 분단문학은 학습자의 감정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유토피아는 현존질서를 부정하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반대로 교육은 현존질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한다. 물론 유토피아 지향의식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교육 또한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을 목표로 하지만 두 요인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긴장이 발생한다. 이 긴장을 이완시킬 방법은 상상이다. 상상의 힘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증폭되는 긴장을 이완

104) 강진호, 「분단문학이 온 길, 그리고 갈 길」, 『동서문학』 제32권 제2호 통권 245호, 동서문학사, 2002, 287쪽.

시키고 문화적 공동체를 통한 미래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sup>105)</sup>이 우리가 기대하는 분단문학 교육이다. 상상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과도 같다. 꿈꾸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지난 우리 역사는 온갖 이념이 난무하고 왜곡된 이념 속에 꿈꾸어야 할 이상을 제대로 그려보지 못하였다. 굳어버린 상상을 문학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논리나 이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상상도 논리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상상은 기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분단극복의 세계에 대해 학습자에게 마음껏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분단문학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3. 교과서 분단문학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았다.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분단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본 작품 자체의 가치를 잘 살려내지 못한다면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을 잘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앞서 작품의 주제별 형상화와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문학 교과서의 구성, 작품 수록 양상 등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 교육의 의도와 현재의 교육적 현황을 살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항목에서는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과서 분단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들어 급격히 고조

---

105) 심민경,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62쪽.

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학 작품 자체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용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켜 학습자의 삶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가치 지향의 문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③ 작품에서 다룬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내면화한다.

문학 활동의 목적은 새인 삶의 질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문학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활동 결과를 내면화해서 삶의 다른 영역이나 차후의 활동에 재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 활동을 일상적 경험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작품이 다룬 가치가 자신의 삶에서 지니는 의의를 탐색하며, 토의·토론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sup>106)</sup>

특히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의 ‘문학의 대한 태도’영역에서 ‘통일 문학’을 선정해 두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과소평가되어 온 일제 강점기의 좌파 문학은 물론, 분단 이후 50여 년 동안 남한 문학, 북한 문학, 재외 국민문학으로 나누어 발전해 온 문학을 아울러,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민족 문학의 모습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sup>107)</sup>

---

106) 김창원, 우한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311쪽.

107) 김창원, 우한용, 앞의 책, 319쪽.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8종 문학 교과서 중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라는 단원에 구체적인 분단 소설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두산, 한국교육미디어, 천재, 대한교과서로 4종뿐이다. 이 4종 문학 교과서에도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분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한 문학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 문학을 수립하는 데 역부족이다.<sup>108)</sup> 대부분의 분단소설은 Ⅲ의 2-1에서 확인한 대로 ‘소설의 수용과 창작’단원에 수록되어 있었고 소수의 교과서만이 <표 4>에서 나타나 있듯이 ‘한국문학의 흐름’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그나마 ‘한국문학의 흐름’에 실린 작품은 분단소설로서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었으나 ‘소설의 수용과 창작’에 수록된 분단소설은 분단소설로서의 가치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았다. 문학교과서에 소설에 대한 수용과 창작 또는 소설의 구성요소 등의 이론적 지식은 마땅히 수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단원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 시대와 세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분단문학이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과서는 남한의 문학, 남한의 이념에 주목해 왔다. 사실 그동안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알고자 하여도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고 북한에 관한 이야기조차 쉽게 할 수 없었다. 지나친 사회적 적색공포증은 분단극복을 남한만의 작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분단은 남한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의 괴리감은 남한만

---

108) 하가림, 앞의 논문, 82쪽.

의 노력으로 좁힐 수 없다. 이제는 분단극복을 위해서 북한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만큼 남북관계는 호전되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북한을 알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긴장의 강도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고 탈북자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도 북한의 작품이 실린다면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작품을 실음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괴리감을 좁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북한문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통일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통일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이전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획일적 주제에서 벗어나 남한이 아닌 북한의 인물들이 겪는 분단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산의 아픔을 중심 소재로 하여 남북 분단을 개인적 차원에서 씻지 못할 아픔으로 그려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sup>109)</sup> 북한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극복의 방향이 그동안 잘못되어왔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타인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로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타자적인 시선을 거두고 지난 역사의 참사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분단극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실어 교육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분단극복의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단문학의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분단문학이 자칫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심어주는 계몽 담론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

---

109) 하가림, 앞의 논문, 83쪽.

해서는 작가나 독자 모두 작중의 인물과 삶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현장의 교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교과서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과정의 편제, 교과서 개편 시기, 문학의 정전(正典)적 성격 등 제도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비해 교과서의 변화는 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은 현실과 지식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이 있을 때 진정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교육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연결해 줄 역할을 하는 것은 교과서가 아닌 교사의 몫이다. 미리 사회의 변화를 경험한 주체로서, 그리고 현실문제와 학습자를 만나게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교사는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기억할 것은 교사 역시 시대의 변화에 동참한 이데올로그라는 것이다. 어떤 일정한 이데올로기 속에 교육받고 성장했다면 그 누구나 이데올로그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마땅히 이데올로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량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작품을 통해 교사가 살아온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사고를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객관적 시각으로 현실문제와 교과서 사이의 괴리를 좁혀주고 학습자의 수용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교과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의 참여는 정치적인 것을 교육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판적 반성과 행동을, 억압에 저항하고 일상의 삶을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신념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획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만인의 교과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수많은 학습 자료나 교재 중 하나이다. 이 교과서에 선정된 제재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는 데 비교적 적절하다고 평가된 자료”에 불과하다.<sup>110)</sup> 그러므로 또 다른 교과서를 환기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

110) 강진호, 「교과서·문학 교육·교사 :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역락, 2002, 10쪽.

## V. 결 론

그동안 우리사회는 지나친 반공색채로 인해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모색은 거의 제자리였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다. 남과 북 각각 자리 잡은 극단적 이데올로기는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자신의 존속을 이어나갔고 그럴수록 화해와는 거리가 먼 역사의 길을 걸어갔다. 더욱이 남한 사회는 철저한 반공이념을 국가의 주된 이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민의 이념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한국전쟁, 북한에 대한 열린 시각, 객관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요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는 진정한 통일염원을 위한 교육이 시급할 때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앞에 분단문학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문학』 교과서의 분단소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 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비평을 근거로 하여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이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의 구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18종의 『문학』 교과서에는 20편이 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전쟁의 비극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분단극복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역사적 거리감이 있는 학습자에게 전쟁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극복의지도 제시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

서에 수록된 작품의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분단문학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주제를 바탕으로 총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선정의 적절성과 구성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통일을 염원하고 이를 위해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요즘 분단 소설의 수록은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 작가의 작품도 대거 수록되었다. 교과서 단원구성에 있어서도 분단소설만의 특징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가 많았다. 특히 몇 개의 교과서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태도'를 중요시 하는 것을 반영하여 단원구성에 통일교육의 '태도'면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 교육이 많이 체계화 되었고 구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작가의 작품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였고 80년대 이후의 작품도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의 구성면에서는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작품의 해당 학습활동이 없는 교과서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분단소설의 교육적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자들은 전쟁과 그로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 역사적 의식도 많이 부족했다. 이렇듯 분단소설을 통한 통일교육은 여전히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분단소설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일차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공감이 있을 때 치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의 아픔과 그 비극을 공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적대시 했던 타자에 대해 수용과 화합할 수 있는 성숙, 즉 극복의식을 표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 이후에 반세기가 흘렀으나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상처로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우리 주위엔 아직도 전쟁의 피해를 간직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함께 고민하며 치유할 때이다. 그리고 이는 교육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교과서 및 교육과정 해설서>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민중서림, 2002.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문원각, 2002.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한국교육미디어, 2002.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두산, 2002.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블랙박스, 2002.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교학사, 2002.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교학사, 2002.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금성출판사, 2002.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상문연구사, 2002.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천재교육, 2002.
-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지학사, 2002.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지학사, 2002.
-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주)대한교과서, 2002.
- 최 응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청문각, 2002.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태성출판사, 2002.
-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형설출판사, 2002.
- 김창원, 우한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논문>

- 강명순, 「분단소설의 교수-학습방법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진호, 「교과서·문학 교육·교사 : '분단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9호, 역락, 2002.
- 강진호, 「반공 사회의 규율과 문학의 증언」, 『현대소설 연구 2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 강진호,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어'교과서 - '교수요목기'의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강진호, 「반공주의 규율과 '국어'교과서 - 1946년~1954년의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제28호, 민족문학사 학회 민족문학사 연구소, 2005.
- 강진호, 「분단문학이 온 길, 그리고 갈 길」, 『동서문학』 제32권 제2호 통권 245호, 동서문학사, 2002.
- 강진호, 「이데올로기의 파괴력과 전통의 복원력 - 윤홍길의 <장마>」, 『문학작품 바로 읽기』, 문학사상사, 2003.
- 김진택, 「중고등학교 분단소설 연구 :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학묵, 「문학교육에서의 분단소설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학순, 「문학 교과서 소재의 분단소설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심민경,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양윤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반영된 교육이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이금례, 「윤홍길 소설연구 :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 이상갑, 「분단 극복과 인간 보편의 가치 탐구 - 최인훈의 <광장>」, 『문학작품 바로읽기』, 문학사상사, 2003.
- 이정현, 「분단소설 교육론」,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이정숙, 「전쟁, 그리고 상처 극복의 몸부림-1950년대 전후소설의 개관」, 『한국 소설의 얼굴-라울전 외, 4』, 푸른사상, 2007.
- 장현숙, 「자유와 절망의 꽃, 그리움으로 피어나다.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소설의 얼굴-모래톱 이야기 외, 6』, 푸른사상, 2007.
- 하가림, 「분단소설 교육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한미옥, 「분단소설을 통한 문학교육의 효율화 방안 - 제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를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단행본>

-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5.
- 권일경 외, 『소설문학 4- 문학자급서』, 천재교육, 2008.

- 김동인 외, 『한국 현대 단편 소설 33』, 도서출판 맑은창, 2005.
- 김윤식, 『김윤식 교수의 소설 특강』, (주)한국문학사, 2004.
- 김윤식·김우종,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5.
- 도종환,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학민사, 1988.
-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국어교육학 원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5.
-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 우한용 외, 『소설 교육론』, 평민사, 1993.
- 유임하, 『기억의 심연』, 이회, 2002.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 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 윤홍길, 『장마』, 민음사, 2003.
- 이봉일,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 월인, 2001.
- 임헌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 정호웅, 『글누림 한국 소설전집8-달밤, 이태준 단편선』, 글누림, 2007.
-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 토지문화재단, 『한국 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1.

# ABSTRACT

## A Study on the Division Novel in the 『Literature』 Text Book

- Mainly on works in High School 『Literature』 text book  
of the 7th curriculum

Na, Ha Na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ain focus of Korean society has always been on the national division after Korean War. It's been dotted with a sever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with a fierce armament race to stand at advantage over each other, and with a war of ideological attrition. We could perceive that the division has not altogether incidently been regarded as the main subject in many novels directly or at least indirectly. Those kinds of novels have come to called Division Novel. In a narrow sense Division Novel refers to Korean public life that sees the

way the common people in Korean think and feel about the separation, or any literature related to the division.

This research deals with 18 literature text books corresponding to the 7th curriculum, and scrutinizes work recording aspect and contents of recorded works by examining novels dealing with a division. Based on this, whether a certain writer or work of a division novel is recorded more than the other, whether there is any common subject matter, and whether a writer shows any bias in viewing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studied.

Division is a national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by all means. Learners are able to meet with many ways about lots of information of division and reunification. But there's no way but only to be expanded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schools as each place is the only organization carrying out the education about reunification with organized and objective aspects. But these days, perception of learners about division is getting narrower and we are criticized the education on reunification is much lagged behind paradoxically. It should be happened from the textbooks first the education of reunification if we say the place should be from each school in these fundamentals for learners. When we consider it has more weight in quantity than any other genres in textbooks, division novels could be a start of education on reunification. I hope these kind of aspects could be reflected from the textbooks following next curriculum.

## 부 록

◆ 아래의 설문은 '1. 분단소설과 학습자의 분단 극복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 / 男

1) 우리민족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다.
- ③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2) 위의 1번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잘 모르겠다                      ③ 아니오

4) 위의 3번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왜 그런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① 화합해야 할 존재

- ② 무섭고 공포감을 주는 존재
- ③ 남한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
- ④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존재

6) 현재 남한이 경계해야 할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                      ② 일본                      ③ 미국

7) 아래의 작품들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중단소설입니다.

작품 중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0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줄거리, 주제를 비롯한 작품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표 해 주십시오.

- |                   |                           |
|-------------------|---------------------------|
| - 학 (황순원)         | - 목넘이 마을의 개 (황순원)         |
| - 유예 (오상원)        | - 수난이대 (하근찬)              |
| - 나목 (박완서)        |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
| - 비오는 날 (손창섭)     |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
| - 중국인 거리 (오정희)    | -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br>(박완서) |
| -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 - 어둠의 혼 (김원일)             |
| - 오발탄 (이범선)       | - 장마 (윤홍길)                |
| - 탈향 (이호철)        | - 엄마의 말뚝 (박완서)            |
| - 사수 (전광용)        | - 철쭉제 (문순태)               |
| - 닳아지는 살들 (이호철)   |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
| - 불신시대 (박경리)      |                           |
| - 광장 (최인훈)        |                           |

8) 위의작품들 중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이어서 나의 일처럼 되새겨 생각해본 소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9) 위에 열거된 문학 작품들은 직, 간접적으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다룬 소설들입니다. 이 소설들을 읽고 우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② 조금                ③ 아니오

10)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이나 분단에 의한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소설들을 읽고 그들의 아픔을 오늘날 나의 아픔이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② 별로                ③ 아니오

11) 위의 작품들 중 궁극적인 분단의 극복을 주제로 한 소설은 몇 편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없다  
② 1-5  
③ 5-15

12) 소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분단의 원인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준은 어느 쪽의 이데올로기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다 속으로 빠집니다. 이런 이명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      ② 부정적

13) 「장마」에서는 삼촌의 화신인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잘 인도하는 것으로 집안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는 분단으로 야기된 상처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치유는 우리의 분단 극복에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별로              ③ 아니오

14) 『문학』 교과서의 분단 주제 소설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분단의 극복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 ① 예              ② 별로              ③ 아니오